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미 영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R. 슈만의 연가곡 《미르텐》
(Myrten, Op.25) 중
괴테의 시를 가사로 하는 가곡들에 대한
분석 연구

201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반주학과

이 아 령

R. 슈만의 연가곡 《미르텐》
(Myrten Op.25) 중
괴테의 시를 가사로 하는 가곡들에 대한
분석 연구

김 미 영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반주학과

이 아 령

인 준 서

이아령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슈만(Robert Schumann, 1810-1856)의 연가곡 《미르텐》(Myrten)을 구성하는 26곡 중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의 시에 붙인 다섯 개의 곡에 대한 분석 연구이다. 슈만은 총 다섯 편의 시들을 괴테의 『서동시집』(西東詩集) (*West-östlicher Divan*)에서 발췌하여 부인이 될 클라라(Clara Josephine Schumann, 1819-1896)에게 헌정하는 연가곡 《미르텐》에 수록한다.

괴테가 노년기에 완성한 『서동시집』은 동양에 대한 동경으로부터 시작하여 동양과 서양의 합일과 조화를 추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본 논문은 『서동시집』과 《미르텐》이 어떠한 의미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다섯 곡을 슈만이 음악적으로 어떻게 표현하였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먼저 작품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낭만주의와 독일 예술가곡, 그리고 괴테의 『서동시집』에 대해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슈만이 『서동시집』에서 발췌한 시를 가사로 하는 다섯 곡을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슈만은 괴테의 『서동시집』에 나타나는 낭만성과 낯선 동양 세계에 대한 동경, 또 동경을 넘어 서양과 동양의 조화를 추구하는 주제내용에 공감하였다. 슈만이 괴테의 『서동시집』에서 발췌한 다섯 편의 시들은 내용적으로 자유로운 마음, 부적(신), 술, 사랑, 그리고 노래와 같이 서로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현실을 부정하고 이상세계를 추구하는 낭만성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또한 26곡의 꽃송이로 엮어진 미르텐 꽃다발은 슈만이 결혼을 통해 추구하는 이상적인 조화와 결합으로도 이어진다. 이는 『서동시

집』의 주제인 서양과 동양의 조화वाद 상응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슈만은 괴테의 다섯 편의 시에다가 음악을 붙이면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보여주었다. 첫째, 슈만은 괴테의 시의 운율을 그대로 살려 강세나 음표를 통해 음악적으로 묘사하였다. 둘째, 단조와 장조의 대조적인 사용으로 말하는 대상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셋째, 말발굽, 딸꾹질, 술 취함, 신을 찬양, 노래, 사랑을 부점, 옥타브 도약, 아르페지오, 당김음 그리고 폴리포니·호모포니 등의 다양한 리듬으로 음악적 동기를 만들어 사용하여 시와 음악을 일치시켰다. 넷째, 예상적 화음(Anticipation), 증 화음, 감 화음 등의 사용으로 화성의 색깔로도 시의 분위기를 이끌어 내었다. 다섯째, 긴 피아노 후주를 통해 말이 아닌 음악만으로 시적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여섯째, 괴테의 원시를 바탕으로 슈만이 재해석하여 하나의 연을 반복 또는 생략하거나 새로운 가사를 덧붙이거나 하는 식의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그 시의 주제가 더 강조되어 표현될 수 있었다. 이처럼 슈만은 짧고 단순할 수 있는 시를 슈만의 세심한 작곡스타일로 옷을 입혀 시와 음악의 완전한 일치를 보여주는 예술가곡을 탄생시켰다.

목 차

I. 서론	1
II. 독일 낭만주의 예술가곡과 슈만	4
1. 독일낭만주의 사조의 특징	4
2. 독일예술가곡	5
3. 슈만의 가곡세계	6
III. 연가곡 《미르텐》(Myrten)에 대한 개괄	8
1. 연가곡 《미르텐》의 작곡 배경	8
2. 연가곡 《미르텐》의 구성 및 내용	9
1) 연가곡 《미르텐》의 구성	9
2) 연가곡 《미르텐》의 내용	13
IV. 괴테의 『서동시집』에서 가사를 발췌한 가곡들에 대한 분석	21
1. 괴테의 『서동시집』의 구성 및 내용	21
2. 다섯 곡들에 대한 작품분석	26
1) 제2곡<자유로운 마음>(Freisinn)	26
2) 제5곡<가곡 1>(Lieder No. 1)	32
3) 제6곡<가곡 2>(Lieder No. 2)	37
4) 제8곡<부적의 글귀들>(Talismane)	44
5) 제9곡<줄라이카의 노래>(Lied der Suleika)	54
V. 결론	63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표 목 차

<표 1> 《미르텐》 26곡의 구성	10
<표 2> 『서동시집』 시편 분류	25
<표 3> 제2곡 〈자유로운 마음〉 (Freisinn)의 가사와 음악적 내용	27
<표 4> 제5곡 〈가곡 1〉 (Lieder No. 1)의 가사와 음악적 내용	33
<표 5> 제6곡 〈가곡 2〉 (Lieder No. 2)의 가사와 음악적 내용	38
<표 6> 제8곡 〈부적의 글귀들〉 (Talismane)의 가사와 음악적 내용	45
<표 7> 제9곡 〈줄라이카의 노래〉 (Lied der Suleika)의 가사와 음악적 내용 ..	55

악보 목차

<악보1> 제2곡 <자유로운 마음> (Freisinn) A부분, 마디1-13	29
<악보2> 제2곡 <자유로운 마음> (Freisinn) B부분, 마디14-21	31
<악보3> 제5곡 <가곡 1> (Lieder No. 1) A부분, 마디1-9	35
<악보4> 제5곡 <가곡 1> (Lieder No. 1) B부분, 마디10-13	36
<악보5> 제6곡 <가곡 2> (Lieder No. 2) A부분, 마디1-11	40
<악보6> 제6곡 <가곡 2> (Lieder No. 2) B부분, 마디20-27	43
<악보7> 제8곡 <부적의 클귀들> (Talismane) A부분, 마디1-8	48
<악보8> 제8곡 <부적의 클귀들> (Talismane) B부분, 마디9-16	49
<악보9> 제8곡 <부적의 클귀들> (Talismane) C부분, 마디21-30	51
<악보10> 제8곡 <부적의 클귀들> (Talismane) A+Coda부분, 마디31-44	53
<악보11> 제9곡 <줄라이카의 노래> (Lied der Suleika) A부분, 마디1-8	58
<악보12> 제9곡 <줄라이카의 노래> (Lied der Suleika) A”부분, 마디33-40	61
<악보13> 제9곡 <줄라이카의 노래> (Lied der Suleika) 후주부분, 마디40-43	62

I. 서론

본 논문은 슈만(Robert Schumann, 1810-1856)의 연가곡 《미르텐》(Myrten, Op. 25)에 포함된 26곡 중, 괴테의 『서동시집』(西東詩集) (*West-östlicher Divan*)에서 발췌한 다섯 개의 시들을 가사로 하는 가곡들을 고찰한다. 제2곡 <자유로운 마음>(Freisinn), 제5곡 <가곡 1>(Lieder No. 1), 제6곡 <가곡 2>(Lieder No. 2), 제8곡 <부적의 글귀들>(Talismane), 그리고 제9곡 <줄라이카의 노래>(Lied der Suleika)가 그것들이다.

26개의 곡으로 이루어진 《미르텐》은 각각의 연관성은 적지만 각 곡마다 낭만주의의 정신을 충분히 담고 있다. 이 연가곡에서 슈만은 개연성보다는 26개의 개개의 곡에 내재된 독특한 낭만성을 드러냈다. 이는 마치 26개의 낭만적 꽃송이를 엮어 하나의 꽃다발을 만든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 연가곡은 슈만이 자신의 신부 클라라를 위한 색색 가지의 꽃다발을 헌정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학적 지식이 높았던 슈만은 당시 저명한 시인인 하이네(Heinrich Heine, 1797-1856),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 뤼케르트(Friedrich Rückert, 1788-1866), 모젠(Julius Mosen, 1803-1867), 번즈(Robert Burns, 1759-1796), 바이런(George Gordon Byron, 1788-1824), 무어(Thomas Moore, 1779-1852), 펜쇼(Catherine Maria Fanshawe, 1765-1832) 등의 시에 곡을 붙였는데, 특별한 서사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슈만은 괴테의 『서동시집』에서 다섯 편의 시를 선정하였다. 『서동시집』은 괴테의 노년기에 완성된 작품으로써 가보지 못한 먼 곳의 세계 즉, 동방에 대한 동경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괴테는 이 시집에서 동방에 대한 동경을 넘어 주제를 서방과 동방의 합일과 조화로까지 발전시킨다. 총 239편으로 이루

1) 슈만 연가곡 《미르텐》 제1번의 제목이 헌정(Widmung)이다.

어진 이 장대한 시집에서 슈만이 선택한 시들은 특별한 개연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 다섯 곡에 사용된 시들은 당시 유럽의 복잡하고 불안한 상황과는 대조적인 고즈넉하고 평온한 배경에서 별, 술, 부적, 노래, 사랑 등과 같은 낭만적인 세계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는 현실보다는 낭만적 이상세계를 동경하는 슈만의 정신세계와 만나는 것이며, 특히 클라라와의 결혼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아름답고 순수한 세계와 닿아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괴테의 시를 가사로 하는 다섯 곡 중 <줄라이카의 노래>를 제외하고 나머지 곡들은 슈만의 연가곡 《미르텐》 중에서 유명하거나 많이 불리는 곡들은 아니다. 그리하여 《미르텐》 중 괴테 시에 의한 곡들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많이 연구되지도 않았다.

국내에서 발표된 연가곡 《미르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연구의 방향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시의 운율과 음악적 악센트를 중심으로 연구한 논문²⁾이다. 두 번째 연구의 방향은 가사를 제공한 시인을 중심으로 시와 음악의 관계를 살펴본 논문들이다. 이에는 하이네, 뤼케르트, 번즈의 시를 가사로 하는 가곡들이 연구되었다.³⁾ 세 번째 연구의 방향은 《미르텐》의 곡 중 여섯 곡을 발췌하여 슈만의 음악어법 속에 담겨있는 슈만의 낭만성을 연구한 학술논문이다.⁴⁾ 마지막으로 『서동시집』의 《줄라이카 시편》의 시를 가곡화한 음악을 대상으로 그 시의 특징들이 작곡가에 의해 음악 안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연구한 논문⁵⁾이다. 하이네와 뤼케르

2) 형진미, “슈만 가곡집 《미르테의 꽃》 연구 : 시의 운율과 음악적 악센트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5)

3) 이한나, “슈만 《미르테의 꽃(Myrtten) Op.25》중 하이네의 시에 의한 예술가곡에 나타난 낭만주의적 기법 고찰,”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김이슬, “슈만의 가곡집 《미르텐》 (Myrtten, Op.25) 작품 연구 - 뤼케르트와 하이네의 시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6)

김창숙, “Schumann의 Myrtten(Op.25)中 Burns의 詩에 붙인 歌曲에서 詩와 音樂과의 關係分析 研究,”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4) 지형주, “구월의 신부를 위한 노래 <미르텐 Myrt(h)en> 에 담겨있는 슈만의 낭만성,” 『음악이론연구』 11(2006) 학술논문

5) 이은미, “괴테의 『서동시집』 과 예술가곡을 통해 본 시와 음악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석

트의 곡은 많이 불리는 곡들이고, 번즈는 연가곡에 많은 시를 제공한 시인이다. 이렇듯 다른 시인들의 작품들에 대해서는 많이 불리어지고 연구되었지만 괴테의 시를 가사로 하는 곡들은 <줄라이카의 노래> 이외에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괴테의 시를 가사로 하는 다섯 곡의 노래들 중 <줄라이카의 노래>를 제외한 네 곡은 음악적으로 의미가 없는 곡들인가? 괴테의 『서동시집』은 괴테의 말년의 사상을 나타내는 중요한 작품이다. 슈만은 『서동시집』의 수많은 시편들 중 다섯 개의 시를 발췌하여 연가곡 《미르텐》에 삽입하였다. 그렇다면 분명히 슈만은 이 다섯 개의 시들로 표현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슈만이 괴테의 많은 작품 가운데 『서동시집』에서만 발췌해서 작곡한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관련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발췌된 다섯 개의 시가 슈만의 연가곡 《미르텐》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또 괴테의 후기 문학에 나타난 풍부한 낭만성과 초월성을 낭만주의의 대표적 작곡가인 슈만이 어떻게 해석하였는지를 연구하여 연가곡 《미르텐》의 내용을 좀 더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다. 첫째, 작품의 배경인 독일 낭만주의 예술가곡과 슈만의 가곡세계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둘째, 연가곡 《미르텐》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해서 고찰할 것이다. 셋째, 괴테의 『서동시집』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해서 살펴본 후, 슈만이 발췌한 다섯 곡의 가사와 음악을 분석하여 연가곡 《미르텐》에 삽입된 괴테 시를 가사로 하는 가곡들의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사학위논문, 2013)

II. 독일 낭만주의 예술가곡과 슈만

1. 독일 낭만주의 사조의 특징

19세기 낭만주의는 18세기의 계몽주의가 신봉한 이성주의와 합리주의를 거부한 사조이다. 이러한 사상적 주류는 사회적 변화와도 관계한다. 18세기 유럽의 사회는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으로 인해 시민계급의 의식화와 도시화, 기계화 등의 큰 변화를 맞이했다. 이것은 왕정 중심의 상류계층이 사회를 지배하던 것에서 시민계층 중심의 사회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가내수공업 중심의 소규모 생산에서 증기기관을 이용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과 집약적 생산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 사회적 변혁이 시작되었다.⁶⁾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가치관과 질서에 큰 혼란을 주게 된다. 정치적, 사회적 불안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현실에 대한 도피를 초래하게 된다.

이것은 당시의 문학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18세기 후반 등장한 독일의 낭만주의 문학이 그것이다. 현실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이상과 환상, 꿈에 대한 갈망이 주를 이루며, 이것은 19세기 낭만주의 음악관의 시초가 된다. 낭만주의 음악관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세계에 대한 동경을 다른 예술보다 음악을 통해 가장 잘 표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는 음악의 미학적 위치 상승을 야기했다.⁷⁾ 가사가 있는 성악곡이 주류를 이루던 전통적 음악 세계와는 달리 낭만주의 시대는 주로 기악곡으로 음악의 추상성을 표현하였고 그 가치가 예술적으로 높이 평가되었다.⁸⁾

6) Ulrich Michels, 『음악은이 2』, 홍정수, 조선우 편저 (서울: 세광음악, 1996), 435.

7) 홍정수, 김미옥, 오희숙, 『두길 서양음악사 2』 (나남, 2006), 150.

8) 홍정수, 김미옥, 오희숙, 위의 책, 152.

2. 독일 예술가곡

예술가곡은 음악과 시가 결합을 이루는 예술장르이다. 문학적인 영감과 음악적인 표현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독일 낭만시대의 성악음악을 대표하는 장르로서 19세기에 이르러 절정을 이루며 예술적 지위를 얻게 되었다.

이처럼 독일에서 낭만주의 예술가곡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고전시대에 발달된 기악작법과 독일 시문학의 융성을 생각할 수 있다. 하이든(Franz Joseph Haydn, 1732-1809),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이 이룩한 기악작법은 기악음악에 많은 표현력을 주었다. 또한 괴테, 하이네, 실러(Johann Christoph Friedrich von Schiller, 1759-1805), 아이헨도르프((Joseph von Eichendorff, 1788-1857) 등의 대표적 문호들은 사랑과 이상, 꿈에 대한 갈망, 자연에 대한 동경 등과 같은 주제로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내용의 시를 많이 남겼다.⁹⁾ 이러한 시 문학은 19세기 많은 작곡가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어 많은 예술가곡들이 탄생하게 된다.

19세기 예술가곡이 발달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기악음악을 높이 평가한 낭만주의 음악관이다. 낭만주의자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이상세계는 “규정 불가능한 동경과 이상세계였다. 그들은 가사가 배제된 기악음악에서 이러한 세계가 가장 순수하게 표현될 수 있다”¹⁰⁾고 믿었다. 낭만주의적인 기악음악관은 예술가곡에서 피아노의 역할을 증대¹¹⁾시켰으며, 피아노 반주부는 시어가 다 말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하는 중요한 언어적 역할을 하게 된다.

9) 홍정수, 김미옥, 오희숙, 『두길 서양음악사 2』, 172.

10) 홍정수, 김미옥, 오희숙, 위의 책, 152.

11) 홍정수, 김미옥, 오희숙, 위의 책, 172.

3. 슈만의 가곡세계

슈만¹²⁾은 낭만주의 문학가 장 파울(Jean Paul, 1763-1825)과 E. T. A.호프만(Hoffmann Ernst Theodor Amadeus, 1776-1822)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예술의 본질은 “시적인 것”이라고 보았다.¹³⁾ 여기에서 말하는 시라는 용어는 단순하게 “시를 짓는 일”¹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일상생활을 산문적이라고 표현한다면, 예술은 한 차원 높이 승화된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다.”¹⁵⁾ 슈만의 시적 세계는 산문적인 일상과 대립되며 보다 높은 차원의 세계로 간주되어 음악과 문학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었다.¹⁶⁾ 이러한 슈만의 음악적 특징이 잘 나타난 것이 예술가곡 장르이다.

슈만의 가곡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성악성부와 피아노는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서로 융합하여 유기적

12) 슈만은 1810년 6월 8일 독일 작센지방의 츠비카우에서 서적상의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1817년 성 마리아 교회 오르가니스트이자 츠비카우 소학교 교장인 쿤치(J. G. Kuntzsch)에게서 처음으로 피아노를 배웠다. 1821년 피아노, 관현악, 합창곡 등을 쓰기 시작해서 1822년에 첫 작품을 작곡했다. 한편 슈만은 이 시기에 자신의 산문집을 편집하는 등 당대의 대문호들인 실러, 괴테, 장 파울 등의 작품에 심취해 있었다. [이경숙, 하이네와 슈만, 대한민국예술원 제 43집, 2004, 141] 1826년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라이프치히 대학 법학과에 입학하게 된다. 하지만 1829년 하이델베르크 대학으로 옮기면서 음악을 자신의 진로로 선택하게 된다. 1830년 음악가가 되기 위해 비크(Friedrich Wieck)의 문하로 들어가 피아노를 배웠다. 무리한 연습으로 인해 피아노를 더 이상 칠 수 없게 되자 작곡으로 전향하게 된다. 문학에도 관심이 많았던 슈만은 1834년 음악잡지인 ‘음악신보(Neue Zeitschrift für Musik)’를 출간하게 된다. 주필로 활동하면서 논문과 음악비평을 썼는데 이 비평을 통해 슈베르트, 쇼팽, 브람스 등의 작곡가를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 1836년 은사 비크의 딸 클라라(Clara Wieck)와 사랑에 빠졌으나 비크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 법정에 소송하고서 1840년, 승소하여 결혼하게 된다. 1842년 경제적 문제로 클라라와 함께 러시아로 연주 여행을 떠난다. 하지만 러시아에서의 클라라의 성공은 슈만에게 부담이 되었고 우울증도 심해지기 시작했다. 1843년 라이프치히 음악원의 강사로 잠시 일하고 이 무렵 정신분열 증세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한다. 이 후 드레스덴에서 합창 지휘와 뒤셀도르프 시립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 지휘자로 부임하여 활약하였다. 하지만 또다시 정신분열 증세가 더 심해지자 사임하고 연주여행을 다니다가 1854년 라인 강에 투신하게 되는데 다시 구조된다. 2년 후, 슈만은 회복하지 못하고 1856년 46세에 생을 마감한다.

13) 홍정수, 김미옥, 오희숙, 『두길 서양음악사 2』, 166.

14) 김미애, 『독일 가곡의 이해』, (서울: 삼호출판사, 1998), 86.

15) 김미애, 위의 책, 86.

16) 홍정수, 김미옥, 오희숙, 『두길 서양음악사 2』, 166.

인 관계를 형성한다. 둘째, 슈만은 예술가곡에서 더 길어진 전주와 간주, 후주를 사용한다. 하나의 독립된 반주부가 가곡 전체의 분위기를 예상해주기도 하며 연결시키거나 마무리 짓기도 하면서 피아노반주부의 역할을 더 증대시켰다.¹⁷⁾ 셋째, 문학적 수준이 상당하여 가사를 선택할 때도 매우 까다로웠던 슈만은 동시대의 하이네, 아이헨도르프, 샤미소(Chamisso Adalbert von 1781-1838) 등 유명한 시인들의 작품을 가곡화 하였다.¹⁸⁾ 넷째, 연가곡을 많이 작곡하였다. 1840년은 슈만에게 있어 ‘가곡의 해’라 불린다. 그 해, 슈만은 클라라와 결혼을 했으며 무려 138개의 가곡을 작곡을 했다. 연가곡으로 하이네의 시로 엮어진 《리더크라이스》(*Liederkreis*, Op. 24)와 《시인의 사랑》(*Dichterliebe*, Op. 48), 아이헨도르프의 시로 엮어진 《리더크라이스》(*Liederkreis*, Op. 39), 샤미소의 시로 엮어진 《여인의 사랑과 생애》(*Frauen-Liebe und Leben*, Op. 42)와 같이 한 시인의 작품으로 작곡한 것과, 《미르텐》(Op. 25)과 같이 다양한 시인들의 시로 작곡한 작품집이 있다.¹⁹⁾

17) Carol Kimball, *Song* (하권), 채은희 번역 (서울: 형설, 2007), 92.

18) 홍경수, 김미옥, 오희숙, 『두길 서양음악사 2』, 174.

19) Ulrich Michels, 『음악은이 2』, 465.

III. 연가곡 《미르텐》(Myrten)에 대한 개괄

1. 연가곡 《미르텐》의 작곡 배경

미르텐(Myrten)의 “원어명은 Myrtus이다. 지중해 북부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자생종으로 5개의 하얀색 꽃잎과 3-5cm가량의 잎으로 이루어진 꽃이다. 이 꽃은 역사적으로도 많이 등장하는데, 로마 시인 베르길리우스 (Publius Vergilius Maro, 70-19 B. C.)는 자신의 시에서 포플러는 가장 좋아하는 알시테스에게, 포도나무는 바카스에게, 미르텐은 사랑스러운 비너스에게 [...]”²⁰⁾ 라고 표현했다. 또한 베네탈리아라고 불리는 비너스 여신제에서 여자들은 이 꽃줄기로 엮은 관을 쓰고 목욕을 했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미르텐 꽃은 사랑의 여신 비너스와 연관이 크다. 지중해 지역에서 이 꽃은 사랑과 불멸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고대부터 결혼 예식에 다양하게 사용되었다.²¹⁾ 한 예로, 미르텐은 독일의 전통적인 결혼식에서 신부의 화관으로 쓰였고, 신랑의 옷깃에도 꽃았다.²²⁾ 미르텐이 결혼예식에 주로 사용된 까닭은 “딸기향이 은은하게 나는 꽃이지만 맛이 쓰고 손이 많이 가는 까다로운 식물이라 인생의 우여곡절을 함께 겪어야” 하는 결혼을 함축적으로 상징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²³⁾

슈만은 결혼을 앞두고 신부 클라라를 기쁘게 해 주기 위해 자신이 작곡한 사랑의 노래를 선물했다. 26곡으로 이루어진 연가곡은 “슈만의 <가곡의 해>인 1840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작곡”되었다.²⁴⁾ 슈만은 이 연가곡을 사랑과 결혼을 상징하는 《미르텐》이라는 제목을 붙여 결혼식 전 날 밤인 “1840년 9월

20) <https://en.wikipedia.org/wiki/Myrtus> (2016년 3월 26일 접속)

21) <https://en.wikipedia.org/wiki/Myrtus> (2016년 3월 26일 접속)

22) 지형주, “구월의 신부를 위한 노래 <미르텐 Myrt(h)en> 에 담겨있는 슈만의 낭만성,” 23.

23) 지형주, 위의 글, 23.

24) 음악지우사(편). 『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브러리 슈만』 (서울: 음악세계, 2003), 295.

12일, 미르텐 앞에 싸서” 신부에게 헌정하였다.²⁵⁾ 이 때 클라라는 자신의 감정을 아래와 같이 표현했다.

“이 날은 나의 생애에서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날로서 기억될 것이다. 나의 인생의 하나의 시대가 이것으로 끝났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고난의 길을 걸어왔으며 또한 크나큰 환희도 누리고 살아왔다. 나는 그것을 결코 잊지 않는다. 바야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아름다운 인생, 사랑하는 그 사람 속에서만 존재하는 인생이다. 신이여, 좋은 아내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나는 항상 신에 대한 깊은 신뢰로써 살아왔다. 그리고 그 신뢰를 영원히 지니며 살 것이다.”²⁶⁾

위 글에서는 신부가 되는 클라라의 걱정과 기대가 나타나며 그 가운데서도 행복한 신부의 모습이 느껴진다.

2. 연가곡 《미르텐》(Myrten)의 구성 및 내용

1) 연가곡 《미르텐》(Myrten)의 구성

가곡의 해인 1840년에 슈만은 《리더크라이스》(Op. 24), 《리더크라이스》(Op. 39), 《시인의 사랑》(Op. 48)등과 같이 한 시인의 작품으로 연가곡을 창작하기도 하였으나, 《미르텐》은 다양한 시인들의 작품을 엮어 연가곡으로 만들어냈다. 연가곡이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음악적 동기에 의한 연결과 특별한 음악적 의미 등을 부여하여 통일성 있게 조직²⁷⁾된 곡을 말한다. 또한 “연가곡은 모음곡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 이 둘을 구분하기는 힘들다. 그

25) 지형주, “구월의 신부를 위한 노래 <미르텐 Myrt(h)en>에 담겨있는 슈만의 낭만성,” 22.

26) 지형주, 위의 글, 112-113에서 재인용.

27) Carol Kimball, *Song* (하권), 92.

러나 곡들 사이에 어떠한 형태의 일관성(coherence)이 있을 시 연가곡으로 간주된다.”²⁸⁾ 여기서 말하는 일관성은 “한 명의 시인, 하나의 시 모음집, 사랑과 자연과 같은 중심 주제, 통일된 분위기, 그리고 소넷이나 발라드 사이클과 같은 하나의 시적 형태나 장르를 일컫는다.”²⁹⁾ 이러한 연가곡이 가지는 의미들 가운데 《미르텐》의 26곡은 ‘다채로운 낭만적인 시적정신의 주제’로 엮어진 연가곡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미르텐》은 “조성의 건축에 의해 음악적으로 관련성을 갖는 순환곡적 구조”³⁰⁾의 연가곡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26곡으로 이루어진 《미르텐》에 가사를 제공한 시인들과 각 곡의 조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미르텐》 26곡의 구성

순서	제목	저자(원저자) /역자	구성
1	Widmung (헌정)	Rückert	Ab
2	Freisinn (자유로운 마음)	Goethe	Eb
3	Der Nußbaum (호두나무)	Mosen	G
4	Jemand (누군가)	Burns/(번역) Gerhard	e
5	Lieder No. 1 (가곡 1)	Goethe	E
6	Lieder No. 2 (가곡 2)	Goethe	(a)A
7	Die Lotosblume (연꽃)	Heine	F
8	Talismane (부적의 글귀들)	Goethe	C

28) https://en.wikipedia.org/wiki/Song_cycle (2016년 12월 25일 접속)

29) https://en.wikipedia.org/wiki/Song_cycle (2016년 12월 25일 접속)

30) 장견실, “조성구조로 본 슈만의 연가곡 구상,” 『음악과 민족』 16 (1998), 214.

9	Lied der Suleika (줄라이카의 노래)	Goethe (Willener)	A
10	Die Hochländer - Witwe (산지의 과부)	Burns/ Gerhard	e
11	Lied der Braut I (신부의 노래 I)	Rückert	G
12	Lied der Braut II (신부의 노래 II)	Rückert	G
13	Hochländers Abschied (산지의 이별)	Burns/ Gerhard	b
14	Hochländisches Wiegenlied (산지의 자장가)	Burns/ Gerhard	D
15	Aus den hebräischen Gesängen (히브리 노래에서)	Byron/Kömer	e
16	Rätsel (수수께끼)	Byron (Fanshawe)/ Kannegießer	B
17	Venetianisches Lied I (베니스의 노래 I)	Moore/ Freiligrath	G
18	Venetianisches Lied II (베니스의 노래 II)	Moore/ Freiligrath	G
19	Hauptmanns Weib (대위의 아내)	Burns/ Gerhard	e
20	Weit, weit (멀리, 멀리)	Burns/ Gerhard	a
21	Was will die einsame Träne (외로운 눈물은 무엇을 원하는가)	Heine	A
22	Niemand (아무에게도)	Burns/ Gerhard	F
23	Im Westen (서쪽에서)	Burns/ Gerhard	F
24	Du bist wie eine Blume (그대는 한 송이 꽃과 같네)	Heine	Ab
25	Aus den östlichen Rosen (동쪽의 장미로부터)	Rückert	Eb
26	Zum Schluß (마치며)	Rückert	Ab

표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연가곡 《미르텐》은 7명의 시인들의 시로 엮여
져 있는데, 그 중 뤼케르트의 시 5편, 괴테의 시 5편, 모젠의 시 1편, 게르하르
트에 의해 번역된 번즈의 시 8편, 하이네의 시 3편, 퀘르너에 의해 번역된 바
이런의 시 2편, 프라일리그라트에 의해 번역된 무어의 시 2편을 가사로 하는
총 26곡으로 구성 되어있다.

2) 연가곡 《미르텐》(Myrten)의 내용

다음은 7명의 다양한 시인들의 시로 엮어진 연가곡 《미르텐》의 26곡, 각 곡들의 내용을 짧게 살펴보고자 한다.

(1) <헌정>(Widmung)

슈바인푸르트(Schweinfurt)에서 태어난 서정시인 튀케르트의 시에 붙인 노래로 슈만의 가곡 중 독립적으로도 유명한 곡이다. A-B-A구조를 가지며, 신부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곡이다. 연가곡 《미르텐》이 클라라에게 결혼 선물로 헌정한 노래로써 첫 곡의 제목이 헌정이란 것은 매우 어울리는 듯하다.

(2) <자유로운 마음>(Freisinn)

독일의 문호 괴테가 1818년 발표한 말년의 시작품 『서동시집』의 《시인 시편》에서 발췌한 시이다. 민요풍의 가곡으로 명랑하고 신선한 템포를 제시한다. 이 곡은 자유롭게 말을 타고 다니는 시적화자와 그런 시적화자를 언제나 지켜주는 신의 모습을 노래하는 내용을 가지며 말 발굽소리를 묘사하는 부점 리듬이 특징적이다.

(3) <호두나무>(Der Nußbaum)

민요풍적인 서정시에 뛰어난 모젠(Julius Mosen)의 시에 의해 작곡되었다. 결혼을 앞둔 소녀의 설레임과 기다림을 내용으로 하는 곡이다. 소녀는 잠결에

창문 넘어 나무들이 소녀의 내년에 있을 결혼에 대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짓는다. 왼손부터 시작해 오른손까지 이어지는 아르페지오 반주는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과 꽃잎을 표현하여 시와 음악을 일치시킨다.

(4) <누군가>(Jemand)

스코틀랜드의 민요시인 번즈(Burns)의 시에 의한 곡이다. 원시는 스코틀랜드의 방언으로 쓰였지만, 게르하르트(W.Gerhard)에 의해 독일어로 번역되었다. 누군가를 향한 애타는 사랑으로 신에게 그 사람을 지켜달라고 애원하는 내용이다.

(5) <가곡 1>(Lieder No. 1)

괴테의 『서동시집』의 <<술집 시편>>에서 발췌한 시이다. 민요조를 가지며 홀로 술을 마시며 사색의 시간을 가질 때,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내용으로 2행으로 구성되었다.

(6) <가곡 2>(Lieder No. 2)

앞 시와 마찬가지로 괴테의 『서동시집』의 <<술집 시편>>에서 발췌했으며, 술을 사랑하는 사람의 심리를 재미있게 표현하였다.

(7) <연꽃>(Die Lotosblume)

독일의 뛰어난 낭만파 시인 하이네의 『노래의 책』 (Buch der Lieder)에 실

린 시에 의해 작곡되었다. 밤에 꽃을 피우는 연꽃은 태양을 피하고 연인인 달을 기다린다. 달빛으로 물든 밤의 아름다운 분위기를 피아노의 부드럽고 느린 연타화음으로 표현하였다.

(8) <부적의 글귀들>(Talismane)

괴테의 『서동시집』의 <<시인 시편>>에서 발췌했으며, 장엄하고 엄숙하게 신을 찬양하는 노래이다.

(9) <줄라이카의 노래>(Lied der Suleika)

괴테의 『서동시집』의 <<줄라이카 시편>>에 실린 시 중 <줄라이카> 시를 토대로 작곡하였다. <<줄라이카 시편>>은 괴테와 마리안네가 주고받은 사랑의 편지의 내용이 시 속에 반영되고 있고, 줄라이카라는 이름은 괴테의 정신적인 애인인 마리안네에게 줄라이카라는 동양적인 이름을 붙인 것이다. <줄라이카의 노래>는 총 4연으로 구성되었으며, 연인 사이의 사랑을 노래한다.

(10) <산지의 과부>(Die Hochländer-Witwe)

번즈의 시에서 발췌했으며, 현재의 불안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과거의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는 내용을 담은 곡이다.³¹⁾

31) 김창숙, “Schumann의 Myrten(Op.25)中 Burns의 시에 붙인 歌曲에서 詩와 音樂과의 關係 分析 研究,” 28.

(11) <신부의 노래 1>(Lied der Braut, No. 1)

“뤼케르트의 『사랑의 봄』 중 여섯 번째 화환의 ‘결합’(Verbunden)에 수록된 33번째 작품이다.”³²⁾ 이 시는 결혼을 앞둔 신부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해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적어진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더 온전히 사랑하게 되었다고 어머니를 향해 고백하며 노래하는 곡이다.

(12) <신부의 노래 2>(Lied der Braut. No. 2)

“뤼케르트의 『사랑의 봄』 중 여섯 번째 화환의 ‘결합’(Verbunden)에 수록된 36번째 작품이다.”³³⁾ 결혼을 앞두고 있는 딸이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어머니에게 호소하는 노래이다.

(13) <산지의 이별>(Hochländers Abschied)

번즈의 시에서 발췌했다. 자유와 용기의 요람인 땅, 시적 화자의 고향인 산지를 그리워하며 동경하는 노래이다.

(14) <산지의 자장가>(Hochländisches Wiegenlied)

번즈의 시에서 발췌했으며 민요풍의 곡이다. 유절 형식의 짧은 곡으로서 자장가 형태로 이루어져있다. 악상은 전체적으로 *P*(피아노)를 나타내며, 반주부는 스코틀랜드의 민속악기인 백파이프의 소리가 묘사되어 표현되었다.

32) 김이슬, “슈만의 가곡집 《미르텐》(Myrten, Op.25) 작품 연구 - 뤼케르트와 하이네의 시를 중심으로,” 49.

33) 김이슬, 위의 글, 59.

(15) <히브리 노래에서>(Aus den hebräischen Gesängen)

영국의 시인 바이런의 시에서 발췌하였다. 성경의 내용을 시로 옮겼으며, 낭송풍의 노래가 특징이다. 다윗이 수금 연주로 사울의 악신을 몰아내는 내용이다.³⁴⁾

(16) <수수께끼>(Rätsel)

바이런의 시에서 발췌하였다. 실제는 17세기의 여류시인인 펜쇼의 시이며 카네기씨에 의해 독일어로 번역된 시를 가사로 하였다. 곡의 시작에는 ‘낭송풍으로 노래하는 것이 좋다’라는 지시어와 곡의 끝에는 ‘음악가는 최후의 음절을 노래하지 않는 쪽이 노래의 뜻을 남김없이 충분히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슈만의 구체적인 지시어가 적혀있다. 곡의 끝부분에 슈만이 was ist’s? (그것은 무엇인가?)라는 가사를 덧붙여 곡의 제목(수수께끼)답게 질문한다. 곡의 내용은 철학적이며 낭만적이다.³⁵⁾

(17) <베니스의 노래 1>(Zwei Venetianische Lieder. No. 1)

아일랜드의 시인 무어의 시에서 발췌하였다. 무어는 “아일랜드의 특유의 기지(機智)와 풍자(諷刺)가 풍부하고 또 그 재료를 주로 동양에서 구하여 이국정서를 풍기는 시인이다.”³⁶⁾ 이태리의 배 곤돌라의 움직임을 묘사하여 반주부로 표현하였다.

34) 지형주 “구월의 신부를 위한 노래 <미르텐 Myrt(h)en> 에 담겨있는 슈만의 낭만성,” 30.

35) R. Schumann, 『슈만 가곡집: 미르테의 꽃. 리더크라이스. 여자의 사랑과 생애. 시인의 사랑 등: 高聲用』(서울: 태림, 2000), 197.

3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880843&cid=43671&categoryId=43671>
(2016년 11월 4일 접속)

(18) <베니스의 노래 2>(Zwei Venetianische Lieder. No. 2)

무어의 시에서 발췌하였다. 앞 시와 같이 곤돌라의 움직임을 묘사한 반주부가 특징이며 유절형식으로 이루어져있다. 8마디의 전주, 간주, 후주가 있으며 같은 시에 멘델스존도 작곡을 하였다.³⁷⁾

(19) <대위의 아내>(Hauptmanns Weib)

번즈의 시로 게르하르트가 독일어로 번역한 것에 곡을 붙였다. 대위의 아내로서 전쟁에 나가기 위해 무장을 하고, 적을 무찌르면 남편과 평화 속에 살아갈 수 있다고 노래하는 내용이다.

(20) <멀리, 멀리>(Weit, weit)

번즈의 시에서 발췌하였고, 민요풍으로 유절형식을 가진다. 자신을 사랑해 주던 청년이 저 멀리 산으로 떠나가서 슬픈 시적화자의 마음을 내용으로 한다.

(21) <외로운 눈물은 무엇을 원하는가>(Was will die einsame Träne)

“하이네의 『노래의 책』 중 ‘귀향’(Die Heimkehr)에 수록된 27번째 시이다.”³⁸⁾ 과거에 고였던 ‘고독한 눈물’과 현재에도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오래된 ‘고독한 눈물’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저자의 소망이 담긴 내용의 시이다.

37) R. Schumann, 『슈만 가곡집: 미르테의 꽃. 리더크라이스. 여자의 사랑과 생애. 시인의 사랑 등: 高聲用』, 198.

38) 김이슬, “슈만의 가곡집 <미르텐> (Myrten, Op.25) 작품 연구 - 뤼케르트와 하이네의 시를 중심으로,” 65.

(22) <아무에게도>(Niemand)

번즈의 시에서 발췌하였다. 화자는 아내를 아무에게도 넘겨주지 않고 홀로 지키며, 돈을 누구에게도 빌려주거나 빌리지 않고, 사람들의 군주도 추종자도 되지 않으며, 유쾌한 인물로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다는 의기 찬 내용이다.³⁹⁾

(23) <서쪽에서>(Im Westen)

번즈의 시에서 발췌하였다. 북쪽이나 동쪽, 남쪽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해가 저무는 서쪽에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내 아이를 가슴에 꼭 껴안아 행복하게 해 줄 것이라는 꿈을 꾸며 기대하는 내용을 가진다. 시적화자의 서쪽나라에 대한 동경이 느껴진다.

(24) <그대는 한 송이 꽃과 같네>(Du bist wie eine Blume)

“하이네의 『노래의 책』 중 ‘귀향’(Die Heimkehr)에 수록된 47번째 시이다.”⁴⁰⁾ 슈만이 사랑하는 신부 클라라를 생각하며 이 시를 발췌하였을 것이고, 클라라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라고 전해진다. 사랑하는 그대를 꽃의 아름다움에 비유하며 신에게 그녀를 지켜주기를 기도하는 내용이다.

(25) <동쪽의 장미로부터>(Aus den östlichen Rosen)

“뤼케르트의 『동방의 장미』 중 ‘멀리 있는 연인에게 보내는 인사’에 붙인

39) 김창숙, “Schumann의 Myrten(Op.25)中 Burns의 詩에 붙인 歌曲에서 詩와 音樂과의 關係 分析 研究,” 67.

40) 김이슬, “슈만의 가곡집 <미르텐> (Myrten, Op.25) 작품 연구 - 뤼케르트와 하이네의 시를 중심으로,” 73.

노래이다.”⁴¹⁾ “1840년 4월초에 쓰인 이 곡의 초고에는 첫머리에 ‘클라라를 연모하며’라고 표기되어 있다.”⁴²⁾ 멀리 떨어져 있는 연인에게 그리운 마음이 가득 찬 사랑을, 장미에 빗대어 보내는 내용이다.

(26) <마치며>(Zum Schluß)

연가곡 《미르텐》의 마지막 곡으로써 코랄풍으로 노래하며 신에게 약혼녀와의 사랑을 지켜달라는 기도가 담긴 곡이다.

이상으로 7명의 다양한 시인들의 시로 엮어진 연가곡 《미르텐》의 전체 26곡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미르텐》 중 괴테의 『서동시집』에서 발췌한 다섯 편의 시들을 집중 분석할 것이며 곡을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서동시집』의 구성 및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41) 김이슬, “슈만의 가곡집 《미르텐》 (Myrten, Op.25) 작품 연구 - 뤼케르트와 하이네의 시를 중심으로,” 81.

42) R. Schumann, 『슈만 가곡집: 미르테의 꽃. 리더크라이스. 여자의 사랑과 생애. 시인의 사랑 등: 高聲用』 199.

IV. 괴테의 『서동시집』에서 가사를 발췌한 가곡들에 대한 분석

1. 괴테 『서동시집』의 구성 및 내용

『서동시집』은 독일의 문학가인 괴테의 시 작품집이며, 70세이던 1819년에 발표된 그의 후기 작품이다. 이 시집은 1819년에 196편으로 나왔으며, 1827년에는 43편이 더 증보된 239편의 신 디반 <Neuer Divan>으로 개정되어 다시 나왔다.⁴³⁾ 괴테는 1814년부터 『서동시집』을 집필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는 시인에게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때이다. 우선 1805년 절친한 동료 문학가 실러((Johann Christoph Friedrich von Schiller, 1759-1805)의 죽음⁴⁴⁾으로 괴테는 인생의 무상함과 외로움으로 고통을 받았다.

당시 바이마르 영주국의 재상이자 저명한 시인이자 문인이었던 괴테는 그 영향력에 비해 특별한 정치색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당시 복잡한 정치상황⁴⁵⁾과 노년의 무기력함까지 더해져 그는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가 없었다. 기력을 소진한 괴테는 17년 동안 찾지 못한 자신의 고향인 프랑크푸르트 근교 비스바덴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 때 고향으로 가는 마차 속에서 요셉 폰 함머(Joseph von Hammer)에 의해 완역된 중세 페르시아의 시인 하피스(Mohammed Schemsed-din Hafis, 1300-1389)의 작품 『모하메드 썸세드 딘 하피스의 디

43) Johann Wolfgang von Goethe, 『서동시집』 최두환 옮김 (서울: 도서출판 시와 진실, 2002), 230.

44) Goethe, 위의 책, 231.

45) 나폴레옹이 전쟁의 패배로 유배를 당하고, 그 정치적 공백을 틈타 등장한 왕정복고 세력이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 시민혁명의 가치를 무시한 채 교만과 부패로 일관된 행동을 일삼았다. 이들의 한계에 실망한 젊은 세대들은 민족해방전쟁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고, 이 민족주의운동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젊고 급진적인 민족주의운동의 중심 세력은 시대의 거장인 괴테를 함부로 대하지는 못했으나 낡은 세력을 대표하는 보수주의자로 여겼다. 주류세력의 부패와 신진세력의 외면, 그리고 절친한 동료의 죽음은 괴테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다. [Goethe, 위의 책, 230]

반』 (Der Divan Mohammed Schemsed-din Hafis)을 읽게 된다.⁴⁶⁾ 수 백 년의 시대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하피스의 궁정생활과 정복자 티무르와의 만남, 주변국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는 작가로서의 위치,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고뇌와 인생의 무상함이 현실에서 비슷한 처지를 겪고 있던 괴테의 마음을 이끌기에 충분했다. 괴테는 자신의 곤혹스러운 처지와 비슷한 상황에 감정을 이입하게 되었고 이 책은 『서동시집』의 집필뿐만 아니라 그의 노년의 창작생활에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된다.⁴⁷⁾ 정신적으로도 고립되어 있던 괴테에게 하피스는 새로운 영감을 불어 넣어 주었고 그로 인해 다시 많은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강한 동기부여가 되었다.⁴⁸⁾

이처럼 하피스로부터 받은 영향은 책의 제목에도 나타난다. 괴테는 자신의 시집을 “『서동시집』 (*West-östlicher Divan*)이라 이름 붙였는데, Divan 이라는 단어는 동방에서 두루마리 또는 기록된 문서의 모음집을 의미”⁴⁹⁾하는 말이다. 괴테는 이 말 자체가 동양적이라 생각하여 서방 시인인 자신이 동방에 대한 이상세계를 찾고자 하는 의미를 담아 표현했다.⁵⁰⁾

이 시집은 독일의 한 노인이 살던 곳을 떠나 순수한 미지의 세계인 동방으로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로 시작된다.⁵¹⁾ 이 동방의 세계는 괴테에게 영감을 준 하피스가 살던 400년 전의 페르시아로서 상상과 이상의 세계를 나타낸다. 시인이자 상인인 주인공은 페르시아 곳곳을 여행하는데, 기이한 풍경과 이국적인 경험을 통해 이질감을 느끼는 동시에 새로운 문화에 대한 애정을 가지게 된다.⁵²⁾ 괴테는 이 시집에서 새로운 문명을 그저 단순히 동경하거나 모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언어로 미지의 세계를 구체화하여 표현함

46) Johann Wolfgang von Goethe, 『서동시집』 최두환 옮김, 232.

47) 이은미, “괴테의 『서동시집』과 예술가곡을 통해 본 시와 음악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1.

48) Johann Wolfgang von Goethe, 『서동시집』 김용민 옮김(서울: 민음사 2007), 368.

49) 이은미, “괴테의 『서동시집』과 예술가곡을 통해 본 시와 음악과의 관계,” 11.

50) 이은미, 위의 글, 11.

51) Goethe, 『서동시집』 최두환 옮김, 232.

52) Goethe, 위의 책, 232-233.

으로 서방과 동방이 조화를 이루며 하나가 되는 새로운 형태의 시를 창조한다.⁵³⁾

『서동시집』은 시가 쓰인 시기에 따라 나열되지 않고 주제별로 나누어 총 12개의 시편으로 나뉘어 있다. 《시인 시편》(Buch der sänger), 《하피스 시편》(Buch Hafis), 《사랑 시편》(Buch der Liebe), 《성찰 시편》(Buch der Betrachtungen), 《불만 시편》(Buch des Unmuts), 《격언 시편》(Buch der Sprüche), 《티무르⁵⁴⁾(Tamerlane Timur, 1336-1405)시편》(Buch des Timur), 《줄라이카 시편》(Buch Suleika), 《술집 시편》(Buch des Schenken), 《우화 시편》(Buch der Parabeln), 《배화교도 시편》(Buch des Parsen), 《천국 시편》(Buch des Paradieses)이 그 내용이다. 이것은 또한 총 네 개의 대분류인 시론, 잠언, 인물, 종교 파트로 나뉜다.⁵⁵⁾

시와 시인을 주제로 한 《시인 시편》과 하피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하피스 시편》, 그리고 하피스가 그랬듯이 거침없이 사랑을 노래하는 《사랑 시편》이 첫 부분인 ‘시론’ 파트에 포함된다. 두 번째 ‘잠언’ 파트는 성찰과 불만, 격언을 담고 있는데, 현실 정치에 한계를 느낀 괴테는 이 시편을 통해 자신의 안타까운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세 번째 ‘인물’ 파트에 속한 제7편 《티무르 시편》은 『서동시집』 전체의 축을 이루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티무르와 겨울’, ‘줄라이카에게’ 두 편의 시로만 구성되어있다. ‘티무르와 겨울’은 “당대의 나폴레옹을 폭군 티무르에게 빗대어 그의 폭정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시이다.”⁵⁶⁾ 이 시들의 연장선에서 《줄라이카 시편》이 이어진다. 여기서 즐라

53) 이은미, “괴테의 『서동시집』과 예술가곡을 통해 본 시와 음악과의 관계,” 11.

54) “대담한 원정으로 페르시아, 러시아, 인도, 시리아등을 정복한 몽고의 지배자를 가리킨다. 그는 중국 대원정에 나섰다가 69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했다. 하피스는 노년을 그의 폭정 아래 보내야 했는데 이는 그가 젊은 시절에 제드샤 왕의 평화로운 통치 아래서 혜택을 받은 것과는 대조된다. 괴테는 종종 제드샤 왕을 아우구스트 공과 비교했다.” [Goethe, 『서동시집』 김용민 옮김, 176에서 재인용]

55) 이은미, “괴테의 『서동시집』과 예술가곡을 통해 본 시와 음악과의 관계,” 12.

56) <https://ko.wikipedia.org/wiki/%EC%84%9C%EB%8F%99%EC%8B%9C%EC%A7%91>
(2016년 11월 10일 접속)

이카는 괴테가 노년에 정신적 사랑을 나눴던 마리안네 폰 빌레머(Marianne von Willemer)를 의미한다. 친구의 아내였던 마리안네는 무용가이자 가수였고 문학에도 상당한 조예가 있던 재능이 많은 여인이었다. 괴테와 마리안네는 지속적인 만남을 갖지 못하였으나 그녀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영적인 교감을 이어갔다.

《줄라이카 시편》의 내용들은 “괴테가 사랑했던 마리안네에게 보낸 편지들, 페르시아 시인의 시를 매개로 하여 주고 받은 시편뿐만 아니라 마리안네의 시 작품도 포함되었다.”⁵⁷⁾ 그리고 시편 속에서 마리안네는 줄라이카⁵⁸⁾로 노시인 괴테는 하템⁵⁹⁾이라는 인물에 빗대어 나타났다. 실제로 마리안네(줄라이카)의 편지는 《줄라이카 시편》에서 여러 번에 걸쳐 인용되었다.⁶⁰⁾ 이것이 괴테의 아름다운 시로 표현되면서 『서동시집』 속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작품이 되었다.

다음은 《술집 시편》으로 넘어가는데 노시인은 술집에서 술 따르는 청년에게 사랑을 바탕으로 자연의 이치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고 술 따르는 청년은 노시인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낸다. 인생의 황혼에서 노시인은 허무함을 초월하는 감정들을 노래하고 있다.⁶¹⁾ 이것은 마지막 주제인 ‘종교’ 파트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노시인이 느끼는 인생의 지혜를 우화에 비유한 《우화 시편》, 순수한 종교 본연의 모습이 그려진 《배화교도 시편》으로 이어지며, 시는 마지막인 《천국 시편》으로 마무리된다. 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할 수 있다.

57) <https://ko.wikipedia.org/wiki/%EC%84%9C%EB%8F%99%EC%8B%9C%EC%A7%91>
(2016년 11월 10일 접속)

58) 줄라이카라는 이름은 페르시아 사랑의 대서사시인 ‘유스프와 줄라이카’에서 따왔다.

59) 하템이라는 이름은 하피스의 시에서 자주 등장하는 페르시아의 거부 시인인 하템에서 따왔다.

60) 이 사실은 “괴테가 죽은 후 1857년, 마리안네가 독문학자 헤르만 그림에게 보낸 편지에서 처음 밝혀졌으며, 그러나 사전에 약속한 대로 그녀가 죽은 뒤인 1869년에 세상에 알려졌다.”
[Goethe, 『서동시집』 김용민 옮김, 372에서 재인용]

61) <https://ko.wikipedia.org/wiki/%EC%84%9C%EB%8F%99%EC%8B%9C%EC%A7%91>
(2016년 12월 20일 접속)

<표 2> 『서동시집』 시편 분류

표제	제목	슈만 미르텐에 수록된 괴테의 시
시론	1. 《시인 시편》	제2곡<자유로운 마음> 제8곡<부적의 글귀들>
	2. 《하피스 시편》	
	3. 《사랑 시편》	
잠언	4. 《성찰 시편》	
	5. 《불만 시편》	
	6. 《격언 시편》	
인물	7. 《티무르 시편》	
	8. 《줄라이카 시편》	제9곡<줄라이카의 노래>
	9. 《술집 시편》	제5곡<가곡 1> 제6곡<가곡 2>
종교	10. 《우화 시편》	
	11. 《배화교도 시편》	
	12. 《천국 시편》	

2. 다섯 곡들에 대한 작품분석

1) 제2곡 <자유로운 마음> (Freisinn) 62)

『서동시집』의 첫 번째 파트 《시인 시편》에 들어있는 <자유로운 마음>은 각 연이 4행으로 된 2연의 시이다. 괴테의 시는 전체 2연으로 이루어졌는데 슈만에 의해 1연이 한 번 더 반복하여 음악에서는 A-B-A구조를 가진다. 제2곡의 분석 내용을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하였다.

62) 본 논문은 괴테 원시를 번역한 책 중에서 Goethe, 『서동시집』 김용민 옮김을 선택하여 곡의 제목을 가져왔다.

<표 3> 제2곡 <자유로운 마음> (Freisinn)의 가사와 음악적 내용

형식	조성	시와 번역 ⁶³⁾	각운	시적 내용	음악적 기법
A	Eb장조	<p>Laßt mich nur auf meinem Sattel gelten! Bleibt in euren Hütten, euren Zelten! Und ich reite froh in alle Ferne, Über meiner Mütze nur die Sterne.</p> <p>나를 안장 위에 그냥 내버려 두시게! 그대들은 오두막과 천막에 머물러 있게나! 나는 기쁜 마음으로 멀리멀리 말달려 가려네 내 두건 위론 별들만 빛나리니.</p>	-en -en -ne -ne	자유롭게 말을 타는 시적 화자를 노래함	<p><i>f</i>(포르테)</p> <p>Eb장조를 사용하여 활기찬 느낌을 조성</p> <p>말을 타는 느낌의 부점 리듬 사용</p>
B	c단조	<p>Er hat euch die Gestirne gesetzt Als Leiter zu Land und See Damit ihr euch daran ergötzt, Stets blickend in die Höh.</p> <p>그분은 별을 심어 놓으셨네 땅과 바다의 인도자 그대들이 기뻐하면서 항상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p>	-tzt -ee -tzt -öh	말을 타는 시적화자를 인도하고 지켜주는 신을 노래함	<p><i>P</i>(피아노)</p> <p>c단조를 사용하여 엄숙한 분위기 조성</p> <p>신을 찬미하는 코랄풍 반주</p>
A	Eb장조	<p>※슈만에 의해 반복</p> <p>Laßt mich nur auf meinem Sattel gelten! Bleibt in euren Hütten, euren Zelten! Und ich reite froh in alle Ferne, Über meiner Mütze nur die Sterne.</p> <p>나를 안장 위에 그냥 내버려 두시게! 그대들은 오두막과 천막에 머물러 있게나! 나는 기쁜 마음으로 멀리멀리 말달려 가려네 내 두건 위론 별들만 빛나리니.</p>		A와 동일함	A와 동일함

63) 본 논문의 가사는 Goethe, 『서동시집』 김용민 옮김의 책을 인용한다.

제2곡의 조성은 Eb장조이고 박자는 4 /4박자이며, 빠르기는 “Frisch”(생생하게)로 표기되어 있다. 형식은 A-B-A의 3부 형식으로, A부분은 1-13마디, B부분은 14-21마디, 그리고 반복되는 A부분은 22-34마디로 구성된다. 1연에서는 1행과 2행, 3행과 4행의 각운과, 2연에서는 5행과 7행, 6행과 8행이 같은 각운을 이룬다. 자유롭게 말을 타고 달리는 시적화자와 항상 그를 지켜주고 인도해주는 절대적인 신의 모습이 각각 1연과 2연에서 나타나며, 노래하는 대상에 따라 장·단조의 차이와 반주 스타일이 대조로 표현되어 있다. 슈만은 노래의 선율을 피테 시의 운율과도 일치시켰다. 제2곡은 가사의 내용과 같이 시적화자가 말을 타고 달리는 장면이 부점 리듬으로 표현되면서 전체적으로 생생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가진다.

A부분(마디1-13)

곡은 못 갓춘마디로 부점 리듬을 이용해 활기차게 시작한다. A부분에서 나타나는 부점 리듬은 말이 달릴 때 나는 말굽소리를 묘사하고 있으며, 악상도 *f* (포르테)로 시작하여 생동감 있고 활발한 느낌을 준다. A부분은 전체적으로 짧은 피아노전주로 선행하고 성악성부와 함께 연주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마디9, 15와 같이 성악 선율이 피아노 오른손의 내성에 숨어있기도 하다. 화성적인 특징으로는 부점 리듬의 뒤 16분음표의 화성이 그 다음 따라오는 4분음표의 화성을 미리 예상해 주도록 하는 예상적 화음(Anticipation)을 보여준다(마디1-7). 가사 내용 중 ‘나, 너희’와 같이 인칭의 변화에 따라 전조가 진행되어 분위기를 다르게 표현해 주고 있다. 마디13은 Eb장조의 딸림 7화음에서 으뜸화음으로 단순하게 정격 종지한다(악보1).

<악보 1> 제2곡 <자유로운 마음> (Freisinn) A부분, 마디1-13

Frisch **A** *f*

말굽소리를 묘사한 동기(부점리듬) > Laßt mich nur auf meinem Sa_tel

대상:시적화자
예상적 화음 (Anticipation)

E♭: I V V₇ I IV I₆ V₃⁴ I V V₇ I IV

4 gel _ _ ten! bleibt in

I₆ V₃⁴ I B♭: IV I₆ V₃⁴ I₆ ii₅⁶ I₄⁶ V₇ I

7 cu _ _ ren Hü_t_en, cu _ ren Zcl _ _ ten! und ich rei _ _ te froh in al _ le

f: V₅⁶ i
E♭: ii

10 Fer_ _ ne, ü_ bcr me_i_ ner Müt_ze nur die Ster_ ne. *p*

f *f*

V₇ IAb:V₂⁴ I₆ V₃⁴ I V₂⁴ I₆ V₃⁴ I Eb: IV ii₆ V₇ I 정격종지

B부분(마디14-21)

B부분은 노래의 대상이 신으로 바뀐다. 썸머림기호가 *f*(포르테)였던 A부분과는 대조적으로 *P*(피아노)로 바뀌고, 조성은 관계단조인 c단조로 전조한다. 부점 리듬의 활기찬 느낌을 주었던 A부분과는 달리 B부분에서는 반주의 형태가 코랄 풍으로 변하여 분위기를 전환시켜준다. A부분처럼 반주부가 성악선율을 선행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성악선율과 반주부의 오른손은 A부분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진행한다. 마디15와 마디19는 하행하는 가락단음계(B₄-A₄)를 사용하여 증2도(B₄-Ab₄)를 피하고 있는데 이는 가사의 의미인 ‘Gestirne’(별, 마디15)와 ‘ergötzt’(기쁘게 하다, 마디19)를 표현하기 위해서이다(악보2).

<악보 2> 제2곡 <자유로운 마음> (Freisinn) B부분, 마디14-21

14 **B** *p*
 Er hat euch die Ge_stir_nce gesetzt als Lei_ter zu Land und See,
 별

14
 코랄풍반주
 가락단음계사용

18 $\text{c} : \text{V}_3^4 \text{ i } \text{V}_5^6 \text{ i}$
 da_mit ihr euch da_ran (er)götzt, stets blickend in die Höh'.
 기쁘게하다

18
 가락단음계사용
f

A부분(마디22-34)

마디21에서 *f*(포르테)의 짧은 한 마디 간주 후, 곡의 처음과 동일한 A부분이 나타난다. 피테의 원시에는 없는 부분이지만 슈만에 의해서 A부분이 다시 한번 더 반복되어 표현되었다.

2) 제5곡 〈가곡 1〉 (Lieder No. 1)

제5곡 〈가곡 1〉 (Lieder No. 1)은 괴테의 『서동시집』의 세 번째 파트인 《술집 시편》에서 발췌한 시다. 괴테의 시집에는 제목이 없지만 슈만은 〈가곡 1〉 (Lieder No. 1)이라는 제목을 이 곡에 붙였다. 〈가곡 1〉은 6행으로 된 1연의 시이며 슈만에 의해 제1연의 1, 2행이 반복된다. 제5곡의 분석 내용을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하였다.

<표 4> 제5곡 <가곡 1> (Lieder No. 1)의 가사와 음악적 내용

형식	조성	박자	시와 번역	시적 내용	음악적 기법
A	E장조	2/4	<p>Sitz' ich allein, Wo kann ich besser sein? Meinen Wein Trink' ich allein;</p> <p>나 홀로 앉아 있네 어딘들 더 낫겠는가? 내 술은 나 홀로 마신다 (1-4행)</p>	<p>술집에 홀로 앉아 술 마시는 시적화자의 모습</p>	<p>술 취함을 묘사하는 스타카토, 슬러 등 다양한 아티큘레이션과 딸국질 동기인 옥타브 사용</p>
B	C장조	6/8	<p>Niemand setzt mir Schranken, Ich hab' so meine eignen Gedanken.</p> <p>아무도 이만큼만 마시라 나를 막는 사람 없고 나, 나만의 생각을 오롯이 지니고 있네 (5-6행)</p>	<p>술이 가득 들어간 시적화자가 상념에 빠진 모습</p>	<p>갑작스러운 전조와 변박 사용</p> <p>자유로운 빠르기로 표현하라는 지시어 사용</p>
A'	E장조	2/4	<p>※슈만에 의해서 반복</p> <p>Sitz' ich allein, Wo kann ich besser sein? Wo kann ich besser sein? besser sein, besser sein?</p> <p>나 홀로 앉아 있네 어딘들 더 낫겠는가? 어딘들 더 낫겠는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p>	<p>주점에 앉아 술 마시는 화자의 모습이 그 어느 것 보다는 좋다고 강조하는 모습</p>	<p>같은 가사 (besser sein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을 네 번 반복함: 반복된 가사를 똑같은 화성 (V-I)으로 진행시키면서 네 번 모두 다른 리듬의 형태와 멜로디로 다양하고도 재미있게 그려냄</p>

제5곡의 조성은 A와 A'부분은 E장조이고, B부분은 C장조이다. 빠르기는 “Munter”(생기가 넘치는, 활발한)로 표기되어 있다. A부분은 1-9마디, B부분은 10-13마디, A'부분은 14-25마디이며 형식은 A-B-A'의 구조를 가진다. 시는 하나의 연으로 이루어졌으며 1, 2, 3, 4행이, 그리고 5행과 6행이 각각 각운을 이룬다. 시의 내용은 시적 화자가 주점에 앉아서 술을 마시며 느끼는 정신적 쾌감이다.

A부분(마디1-9)

슈만은 술을 마시는 시적화자의 환상적인 쾌감의 순간을 E장조로 표현했다. 옥타브를 도약하는 전주 또한 흥겹다. 중간 중간에도 옥타브 도약이 여러 번 나오며 그것이 때로는 전조로 진행되기도 한다. 당김음적인 리듬을 가지는 피아노 반주의 옥타브 도약은 흡사 시적화자가 흥겨이 술을 마시며 딸꾹질을 하는 상황을 묘사하는 듯하다. A부분에서는 스타카토가 한 마디 간격으로 반복(마디2, 4, 6, 8)되고 있다. 이는 홀로 술을 마시며 느끼는 외로운 마음, 즐거운 마음등과 같은 다양한 감정이 뒤섞인 것을 표현한 것처럼 보인다. 반주부의 오른손은 성악선율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마디2와 마디6에 나오는 증3화음은 슈만이 즐겨 쓰는 화성적 특징 중 하나이다(악보3).

<악보3> 제5곡 <가곡 1> (Lieder No. 1) A부분, 마디1-9

Munter

도약: 발곡질 모티브

Sitz' ich al lein, wo kann ich bes ser sein? meinen Wein trink' ich al lein;

E: V - 7 I #5 - IV V7 <--> 다양한 감정이 뒤섞인 것을 표현

I B: V-7 I-6 * - IV ii6 I4 V7 I

B부분(마디10-13)

A부분과 대조되는 B부분에서 박자는 갑자기 6/8박자로 변하고, 조성 또한 E장조에서 먼 3도인 C장조로 전조 된다. 술에 취한 주인공이 현실을 잊고 깊은 상념에 빠지는 모습이 갑작스러운 전조로 표현되었다. A부분에서 *P*(피아노)의 섬여림으로 마쳤던 성악부는 B부분에서 *f*(포르테)로 시작한다. 반주부는 마디 10, 11, 12에서 세 번의 같은 멜로디 진행과 액센트(>)사용으로 술 취한 주인공의 반복된 행동을 묘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마디12는 성악가에게 *f*(포르테)로 “ad libitum- -ritard.”(연주자 임의로, 점점 느리게)의 지시어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술 취한 주인공이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지며, 같은 생각과 말이 맴도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성악가는 지시어처럼 술에 취한

듯 자유롭게 박자를 표현해 주면 좋을 것 같다(악보4).

<악보4> 제5곡 <가곡 1> (Lieder No. 1) B부분, 마디10-13

B 술에 취한 주인공의 모습을 묘사

10 *f* ad libitum - - - - - ritard.

nie - mand setzt mir Schran_ken, ich hab' so mei_ne eig_nen Ge_dan_ken.

10 ritard.

G: V₇ I 세 번에 걸쳐 술 취한 주인공의 반복된 행동 묘사함

A'부분(마디14-25)

A'부분은 A와 같은 리듬의 형태로 돌아와 주인공이 다시 현실에서 홀로 술 마시는 상황이 그려진다. 가사 면에서 A'부분은 슈만에 의해 제1연의 1, 2행이 또 한 번 반복되는데, 슈만은 반복한 것으로도 모자라 “besser sein?”(이 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마디22-25)의 가사를 두 번이나 덧붙여서 총 네 번(마디 16, 마디20, 마디22, 마디24)의 반복으로 화자의 마음을 강조하여 표현했다. 또한 슈만은 반복된 가사(besser sein)들을 똑같은 화성(V-I)으로 진행시키면서 네 번 모두 다른 리듬의 형태와 멜로디로 다양하고도 재미있게 그려냈다.

3) 제6곡 〈가곡 2〉 (Lieder No. 2)

《미르텐》(Myrten)의 제6곡 〈가곡 2〉 (Lieder No. 2)는 『서동시집』의 《술집 시편》에서 발췌한 시로 시인이 술집의 종업원과 술 따르는 청년에게 건네는 이야기를 가사로 한다. 《술집 시편》에서 시인은 술 따르는 청년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눈다. 슈만이 발췌한 시는 그 처음부분으로 시인이 술집 종업원과 술 따르는 청년을 대상으로 말을 시작하는 부분이다. 제6곡도 제5곡과 같이 괴테의 시집에는 제목이 없지만 슈만은 〈가곡 2〉 (Lieder No. 2) 라는 제목을 이 곡에 붙였다. 〈가곡 2〉는 발췌된 가사에 의거하여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6곡의 분석 내용을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하였다.

<표 5> 제6곡 <가곡 2> (Lieder No. 2)의 가사와 음악적 내용

형식	조성	박자	시와 번역	시적 내용	음악적 기법
A	a 단조	6/8	<p>Dem Kellner.(술집 종업원에게) Setze mir nicht, du Grobian, Mir den Krug so derb vor die Nase! Wer mir Wein bringt, sehe mich freundlich an, Sonst trübt sich der Eilfer im Glase.</p> <p>무지막지한 이 같으니라고 술병을 그렇듯 형편없이 코앞에다 들이대지 말라!</p> <p>포도주를 가져올 땐 상냥하게 나를 바라봐야지.</p> <p>그렇지 않으면 아일퍼⁶⁴ 포도주는 맛이 없어진단 말이야.</p>	술 따르기를 원치 않는 술집 종업원에게 하는 말	일탈적인 폴리리듬을 사용함으로써 낭만적인 정신이 드러남
A'	A 장조	6/8	<p>Dem Schenken.(술 따르는 청년에게) Du lieblicher Knabe, du, komm' herein, Was stehst du denn da auf der Schwelle? Du sollst mir künftig der Schenke sein, Jeder Wein ist schmackhaft und helle.</p> <p>그대 사랑스러운 청년이여, 들어오게. 왜 거기 문지방에 서 있는가? 앞으로는 자네가 술 따르는 이가 되게 그러면 모든 술이 맛있고 맑게 될 것이야.</p>	술 따르기를 원하는 술집 청년에게 하는 말	긍정적인 A장조 사용 4성부 반주로 왼손 포인트 페달사용과 오른손 내성의 움직임으로 따뜻한 느낌표현
B	A 장조	6/8	후주	술집 청년과의 만남으로 기분 좋은 화자의 모습과 마음을 나타냄	술 취함을 상징하는 당김음적인 딸꾹질 동기 사용 같은 멜로디를 <i>f</i> (포르테), <i>P</i> (피아노)로 표현하여 점점 잠에 빠지는 화자의 모습 표현

제6곡의 조성은 A부분은 a단조이고, A'와 B부분은 A장조이다. 빠르기는 “Rasch”(신속하게, 민첩하게)로 표기되어 있다. A부분은 1-11마디, A'부분은 12-19마디, 후주인 B부분은 20-27마디이며 형식은 A-A'-B의 구조로 독일의 옛 바르 형식(Bar form)⁶⁵⁾을 사용하였다. 옛 시대 정신을 동경하는 중세 독일 바르 형식(Bar form)을 사용함으로써 시와 음악의 일치를 꾀하고 있다

시인이 말 하는 대상은 ‘술집 종업원’과 ‘술 따르는 청년’ 두 명이다. 술을 사랑하는 주인공이 자신에게 술 따르기를 원치 않는 술집 종업원에게 말하는 부분은 a단조로, 술 따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청년에게 말하는 부분은 A장조로 작곡하여 대조적인 감정이 잘 드러나고 있다.

A부분(마디1-11)

a단조로 이루어진 A부분은 주인공이 술 따르는 종업원의 공손하지 않는 태도를 나무라는 부분이다. 성악성부는 6/8박자의 단순한 리듬에 의거하고, 반주부의 왼손과 오른손은 6/8박자의 전형적인 리듬에서 벗어난 형태를 가진 독특한 당김음적 느낌을 준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리듬의 진행은 일탈과 자유의 성격을 가진다. 반면, 마디6부터는 어지러웠던 앞부분과 대조를 이루는 6/8박자의 호모포니적인 단순한 짜임새이다. 이는 술에 흠뻑 취한 주인공이 종업원에게 호통을 치는 말을 한층 더 강조해 주는 역할을 한다. 마디10에서는 반주부가 성악가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 *f*(포르테)의 스타카토로 도약하는 하강 진행을 하다가 *ritardando*(리타르단도)되며 페르마타(∞)로 마무리 된다. A부분

64) “아일퍼는 당시 매우 높이 평가되던 포도주의 이름이다” [Goethe, 『서동시집』 김용민 옮김, 272에서 재인용]

65) 바르형식(Bar form)은 “중세 이래 독일에서 사용된 가장 중요한 악곡 형식에 대해서 후세에 붙여진 명칭”이다. 기본적인 형식은 a a(stollen) b(Abges-ang). 형식 그 자체는 옛 성가 등에서 볼 수 있는데 프랑스의 트루바두르나 투루베르 등 발라드 형식의 영향을 받아서 미네젱거나 마이스터징거가 즐겨 사용하여 발전시켰다. 그 변형으로 미네젱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a a b a. 18세기에 흔히 볼 수 있는 $\parallel : a : \parallel : b + a : \parallel$ 등이 있으며 특히 후자를 소나타 형식과 결부시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남용, 『헨드북 음악용어사전』 (서울, 일신서적출판사, 1994), 55]

은 폴리리듬적인 부분에서 구속받지 않는 리듬을 사용함으로 낭만적인 정신이 드러난다. (악보5).

<악보5> 제6곡 <가곡 2> (Lieder No. 2) A부분, 마디1-11

A **Rasch** 신속하게 *f*

(술집 종업원에게) <당김음<세 파트가 각자 폴리리듬>> Set _ _ ze mir night, du

f 폴리포니적 리듬

3 a: i₆ V₆ i V

Gro _ bi _ an, mir den Krug so derb vor die Na _ _ _ se! Wer mir

3 C: V

6 Wein bringt, se _ he mich freund _ lich an, sonst trübt sich der Eil _ fer im

f *f* *f* *f* *f* *f*

호모포니적 리듬

I IV V a: V₆ i IV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a vocal and piano piece. The vocal line is in the upper staff, starting with the lyrics "Gla - se!" and ending with "Du". The piano accompaniment is in the lower staves. A section of the piano part is marked "ritardando" and is enclosed in a box. Dynamics include *f* (forte) and *p* (piano). Chord symbols *V*, *i*, *vii*^o/*V*, and *V* are indicated below the piano part.

A'부분(마디12-19)

A'부분은 A부분과 선율은 같지만 악상과 조성이 대조가 된다. 셈여림은 *f*(포르테)였던 A부분과 다르게 *P*(피아노)의 악상을 표현하며 조성도 a단조였던 A부분과 정반대의 느낌이 나는 A장조로 나타냈다. 그리고 빠르기도 “Etwas langsamer”(조금 느리게)로, “Rasch”(신속한)의 빠르기였던 A부분과는 확실히 대조를 이룬다. 이는 술 따르기를 원치 않는 종업원에게 대하는 태도와는 다르게 술 따르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청년에게는 느리고 따뜻한 말로써 진심을 다하는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서동시집』의 《술집 시편》을 보면 주인공 노시인 하템의 삶 속에서 술집 청년과의 관계는 아주 특별하다. 하템은 “줄라이카에 대한 사랑 못지않게 그를 따르는 술집 청년을 친 손자처럼 사랑하면서 그에게 대 자연의 이치를 가르치며”⁶⁶⁾ 교훈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줄라이카와 이별을 하고 슬픈 시인은 술집 청년으로부터 위로를 얻기도 한다. 이렇게 이 둘의 대화는 친밀하고 따뜻하며 각별하기까지 하다. A'부분은 반주부가 4성부로 움직이는데 오른손의 위 성부와 아래 성부의 움직임은 마치 노인과 술집 청년의 주고받는 대화로 그려진다. 왼손 베이스의 포인트 페달 A음

66) Goethe, 『서동시집』 최두환 옮김, 235.

은 그 들의 대화에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며, 청년에 대한 노시인의 변함없는 사랑의 느낌이 느껴진다.

B부분(마디20-27)

B부분은 긴 후주부분을 담당한다. 슈만의 가곡에서는 후주의 역할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B부분은 청년에 대한 노시인의 애정이 드러나는 A'부분의 연장선으로 성악선율이 아닌 피아노의 선율만으로 노시인의 행복한 마음을 묘사하고 있다. 마디19의 *mf*(메조포르테)로 시작하는 당김음적인 리듬은 술 취한 주인공의 딸꾹질하는 모습이 재미있게 묘사되었다. 그와 함께 아름다운 멜로디는 술집 청년과의 대화를 마치고, 콧노래로 흥얼거리며 기분 좋은 상상을 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나타낸다. 마디23의 또 한 번 반복되는 선율에서는 *P*(피아노)의 셈여림을 사용하여 술기운으로 인해 잠에 빠져드는 주인공의 모습을 점차적으로 흐려지는 장면으로 나타냈다(악보6).

<악보6> 제6곡 <가곡 2> (Lieder No. 2) B부분, 마디20-27

Wein ist schmack_haft und hel_ le.

당김음(말국질 동기)

mf

기분좋은 주인공의 모습을 추주로 표현함

슬 기운에 점점 잠이 드는 주인공의 모습 묘사함

p

(악상다르게 반복)

4) 제8곡 〈부적의 글귀들〉 (Talismane)

《미르텐》(Myrten)의 제8곡 〈부적의 글귀들〉(Talismane)은 『서동시집』의 《시인 시편》 중에서 신을 찬양하는 내용을 가사로 한다. 〈부적의 글귀들〉은 22행으로 된 5연의 시이다. 괴테의 원시는 총 5연으로 구성되었는데 슈만은 이를 3연까지만 발췌하여 사용하였고 1연을 한 번 더 반복한다. 슈만은 제1연을 반복 후, 반복하는 아멘을 종지로 첨가하여 신을 향한 찬양을 강조하여 표현했다. 제8곡의 분석 내용을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하였다.

<표 6> 제8곡 <부적의 글귀들> (Talismane)의 가사와 음악적 내용

형식	조성	시와 번역	시적 내용	음악적 기법
A	C장조	Gottes ist der Orient! Gottes ist der Occident! Nord - und südliches Gelände Ruht im Frieden seiner Hände. 동방은 신의 것! 서방도 신의 것! 북쪽과 남쪽의 땅들 신의 손안에서 평화에 잠겨 있네.	신의 창조성에 대한 찬양	f(포르테)와 액센트(>) 사용 부점 리듬의 사용과 레치타티보 풍의 성악선율 코랄풍의 수직 화성적 반주 정격중지와 아멘중지 사용
B	C장조	Er, der einzige Gerechte, Will für jedermann das Rechte. Sei von seinen hundert Namen Dieser hochgelobet! Amen. 그분, 오로지 정의로우신 분 모두에게 올바른 주신다 그분의 백 가지 이름 ⁶⁷⁾ 중 이 이름 높이 칭송받으라! 아멘.	신의 정의로움에 대한 찬양	P(피아노)로 시작하여 f(포르테)까지 이끌어 냄 왼손을 높은음자리부터 낮은음자리까지 반음계적 순차 하행으로 공간을 넓게 확장시킴 코랄풍 반주
A'	C장조	※슈만에 의해 반복 Gottes ist der Orient! Gottes ist der Occident! 동방은 신의 것! 서방도 신의 것!	신의 창조성에 대한 찬양	A와 동일함
C	e단조	Mich verwirren will das Irren; Doch du weißt mich zu entwirren. Wenn ich handle, wenn ich dichte, Gib du meinem Weg die Richte. 미몽이 저를 어지럽게 하여도 당신은 저를 거기에서 풀어 주십니다. 제가 행동할 때나 시를 쓸 때에도 당신은 제게 올바른 길 알려 주십니다.	나약한 인간의 모습과 그것을 해결해주는 신의 모습	e단조 사용 어지러운 인간세상을 묘사한 반주형태 G장조와 C장조로 순차적으로 전조하여 문제를 해결해주는 신의 모습을 표현

A + C o d a	C 장 조	<p>※슈만에 의해 반복</p> <p>Gottes ist der Orient! Gottes ist der Occident! Nord - und südliches Gelände Ruht im Frieden seiner Hände. A-men! A-men!</p> <p>동방은 신의 것! 서방도 신의 것! 북쪽과 남쪽의 땅들 신의 손안에서 평화에 잠겨 있네. 아멘! 아멘!</p>	A와 동일함 구원의 간절한 갈망을 나타냄	<p>A와 동일함</p> <p>괴테의 시에는 없는 가사 '아멘'을 반복하여 덧붙이는 코다를 첨가; 자신을 인도해주고 구원해주는 신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속감7화음의 연속적인 사용으로 표현됨</p> <p>낮은 음역에서 울리는 종지(C1사용)</p>
----------------------------	-------------	---	---	---

제8곡의 조성은 C장조이며 곡의 연주지시어와 빠르기는 “Feierlich, nicht zu langsam”(장엄한, 느리지 않게)이다. 형식은 A-B-A'-C-A-Coda의 구조로 론도형식이다. A는 1-8마디, B는 9-16마디, A'는 17-20마디, C는 21-30마디, A는 31-38마디, Coda는 39-44마디로 이루어져 있다.

A부분(마디1-8)

A부분은 시의 1연을 가사로 한다. 그 내용은 동서남북 천지를 창조한 신에 대한 찬양이다. A부분에서 피아노 반주와 노래는 한마디씩 주고받는다. 코랄풍의 수직 화성적 반주는 종지적 화성진행을 통해 성악부의 장엄한 레치타티보를 지지하며 이끌어준다. 마디1, 2에서는 V-I의 종지를, 마디3, 4에서는 V-I, IV-I의 화성진행을 한다. 마디4에서 나타나는 C장조의 정격종지울림은 마디5에서 d단조로 갑자기 전조되며, 색채적 변화를 보인다. 이러한 색채적 변

67) “알라신은 백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 시에서 언급되는 오로지 정의로우신 분”이다. [Goethe, 『서동시집』 김용민 옮김, 23에서 재인용]

화는 가사의 내용과 관계한다. 마디1, 2와 마디3, 4의 가사는 신이 창조한 동쪽과 서쪽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마디5, 6에서는 신이 찬양한 남쪽과 북쪽이 언급되는데 이렇게 다른 방향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음악도 갑자기 d단조로 전조된다. 마디1-4마디의 성악성부는 신의 전능한 창조성을 C장조의 으뜸화음에서 부점 리듬을 가진 펼침 화음으로 “Gottes ist der Orient!”(동방은 신의 것!), “Gottes ist der Occident!”(서방도 신의 것!)라는 가사를 레치타티보 풍으로 부른다. 이는 신의 경이로움에 대한 찬미를 표현하는 선율적 형태이다. 이러한 찬미는 아멘종지(IV-I, 마디2)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A부분의 전체적인 악상기호에서도 *f*(포르테)와 액센트(>)의 사용으로 위엄 있는 신의 모습의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있다(악보7).

<악보7> 제8곡 <부적의 글귀들> (Talismane) A부분, 마디1-8

Feierlich, nicht zu langsam 레치타티보 풍의 선율(신의 창조성에 대한 찬양)
부절리듬

Got_tes ist der O_ri_ent! Got_tes ist der Oc_ci_dent!

C: $\text{C} \text{ I}$ $\text{V}_6 \text{ I}$ $\text{IV} \text{ I}_4^6$ $\text{V} \text{ I}$ $\text{V}_6 \text{ I}_6$
아멘종지

5 *p*
북쪽 Nord-und südliches Ge_lände ruht im Frieden seincr Handc_ Er der
남쪽

d: iv V *p*
다른 방향을 표시하는 전조 C: $\text{I}_4^6 \text{ V}_7 \text{ I}$

B부분(마디9-16)

B부분이 시작하는 마디8에서 썸여림기호가 *P*(피아노)로 바뀐다. A부분에서 가사내용이 신의 창조성에 대한 찬양이었다면, B부분을 노래하는 제2연의 가사는 신의 정의로움에 대한 찬양이다. 성악성부와 반주성부가 주고받는 A부분과 달리 B부분에서 성악성부와 반주성부는 코랄 풍으로 함께 연주된다. 오른손은 성악성부의 선율을 중복하고 있다. 썸여림 또한 *P*(피아노)로 바뀌지만,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느껴진다. 마디8에서 피아노반주 왼손이 높은음자리표의

위치부터 시작하여 반음계진행으로 순차하행 하다가 마디11-12의 가사 “Will für jedermann das Rechte”(모두에게 올바름을 주신다)를 Eb장조로 전조하여 강조한다. 마디12, 13에서 두 번에 걸친 크레센도는 마디14부터 액센트(>)를 사용한 강한 옥타브의 반음계적 순차하행을 통하여 마디16의 sf(스포르잔도)까지 진행한다. 슈만은 이러한 울림을 통해 신에 대한 찬미를 표현한다(악보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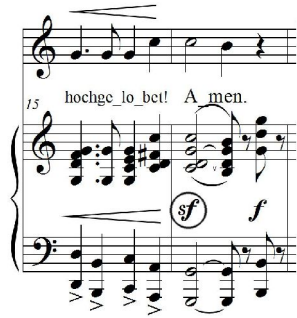
<악보8> 제8곡 <부적의 클귀들> (Talismane) B부분, 마디9-16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the B-section of the 8th movement 'Talismane' from Schumann's 'Die Kluge'. The score is in E-flat major and 4/4 time. It consists of two systems of music, each with a vocal line and a piano accompaniment.

The first system (measures 5-9) features a vocal line with the lyrics: "Nord-und südliches Ge_lande ruht im Frieden seiner Händ_e Er der Ein_zi ge, Ge". The piano accompaniment includes a prominent octava descending chromatic scale in the right hand, marked with accents (>) and a piano (p) dynamic. A box labeled 'B' is placed above the vocal line at measure 9. A note in the piano part at measure 9 is marked with a circled 'p' and the text "(신의 정의로움에 대한 찬양) 코랄풍반주" and "원순반음계진행".

The second system (measures 10-16) features a vocal line with the lyrics: "rechte, will für je_dermann das Rechte. Sei von sei_nen hun_dert Namen die ser". The piano accompaniment continues with the octava descending chromatic scale, marked with accents (>) and a piano (p) dynamic. A note in the piano part at measure 16 is marked with a circled 'p' and the text "반음계적 순차 하행".

At the bottom of the second system, the chord progression is indicated as: Eb: V₇ I₄⁶ V₇.



A'부분(마디17-20)

A'부분은 A부분의 앞부분(마디1-4)을 반복하여 또 한 번 동쪽과 서쪽은 신의 것이라고 외치며 신의 전능함을 강조하여 찬양한다.

C부분(마디21-30)

C부분은 이 곡에서 다른 부분과 가장 구별되는 부분이다. 가사로 쓰인 3연의 제1행 “Mich verwirren will das Irren”(미몽이 저를 어지럽게 하여도)은 나약한 인간의 모습에 대한 서술이다. 슈만은 이를 e단조로 전조하며 표현한다. 이러한 나약한 인간을 올바르게 이끄는 신을 설명하는 제2행의 가사 “Doch du weißt mich zu entwirren”(당신은 저를 거기에서 풀어 주십니다)은 G장조로 전조된다. 또한 삶의 인도자로서의 신을 언급하는 3행과 4행(마디27-28)의 가사 “Wenn ich handle, wenn ich dichte”(제가 행동할 때나 시를 쓸 때에도), “Gib du meinem Weg die Richte”(당신은 제게 올바른 길 알려 주십니다)에서는 다시 C장조로 전조되어 돌아오며 가사의 의미가 세심하게 표현되었다.

시의 행마다 전조가 되면서 가사의 내용과 음악이 함께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얽혀있는 상황들이 전능한 신에 의해 풀려지듯 단조에서 장조로 전조가 되며 시와 음악의 완벽한 일치됨을 보여준다(악보9).

<악보9> 제8곡 <부적의 글귀들> (Talismane) C부분, 마디21-30

A'

15 hochge_lo bet! A men. Got_tes ist der O_ri ent! Got_tes ist der Occi_dent!

V₆ I IV I₄ V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조성으로 표현

C

21 가사를 표현하는 반주 형태 Mich ver_wir-ren will_das Ir-ren; doch du

iv V i iv V i

C

25 weist mich zu_ent_wir-ren. Wenn ich hand_le, wenn ich dich_te, gib du

G: IV V I C: V-7

나약한 인간을 올바르게 이끄는 신의 모습을 설명하는 조성

삶의 인도자로서의 신의 모습을 설명하는 조성

A부분+코다(마디31-44)

슈만은 시의 1연을 노래하는 A부분을 다시 한 번 반복한다. 반복되는 1연의 가사는 신의 창조성에 대한 찬양을 내용으로 한다. 슈만은 이를 반복하는 론도형식(A-B-A'-C-A-Coda)으로 작곡함으로써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슈만은 아멘이 반복되는 코다를 첨가하는데 이는 괴테의 시에는 없는 부분이다. 자신을 인도해주고 구원해주는 신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P(피아노)의 썸여림과 속감7화음의 연속적인 사용으로 표현되었다. 낮은 음역에서 울리는 종지화음(마디43-44)은 이러한 엄숙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킨다(악보 10).

<악보10> 제8곡 <부적의 글귀들> (Talismane) A+Coda부분, 마디31-44

29 **A** *f*

29 mei_nem Weg die Rich_te! Got_tes ist der O_ri_ent!

33

33 Got_tes ist der Oc_ci_dent! Nord_und süd_li_ches Ge_län_de ruht im

Coda

37 *p*

37 Frie_den sei_ner Hän_de. A_men! A_men!

I_4^6 V_7 I vii_5^{06}/V V_7 I vii_5^{06}/V V_7 - I

엄숙한 분위기를 고조시킴

구원의 간절한 갈망을 반복하여 강조함

5) 제9곡 <줄라이카의 노래> (Lied der Suleika)

《미르텐》(Myrten)의 제9곡 <줄라이카의 노래> (Lied der Suleika)는 『서동시집』의 《줄라이카 시편》에 속하는 시이다. <줄라이카의 노래>는 16행으로 된 4연의 시이다. 괴테의 원시는 총 4연으로 구성되었는데 슈만은 1연의 마지막에 한 번 더 반복한다. 제9곡의 분석 내용을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하였다.

<표 7> 제9곡 <줄라이카의 노래> (Lied der Suleika)의 가사와 음악적 내용

형식	시와 번역	시적 내용	음악적 기법
A	<p>Wie! mit innigstem Behagen, Lied, empfind' ich deinen Sinn! Liebevoll du scheinst zu sagen, Daß ich ihm zur Seite bin.</p> <p>노래여, 얼마나 가슴 깊이 즐거웁게 나 너의 의미를 느끼는지! 너는 사랑에 넘쳐 말하는 것 같구나 나 그분 곁에 있노라고.</p>	<p>줄라이카가 쓴 편지의 내용으로 사랑의 감정을 'Lied'(노래)라고 표현하는 '시'에 빗대어 표현함</p>	<p>"Ziemlich langsam" (상당히 느리게)의 지시어 사용</p> <p>아르페지오 사용</p> <p>당김음 사용</p> <p>돈 꾸밈음 사용</p> <p>ritard.(리타르단도) 사용</p>
B	<p>Daß er ewig mein gedenket, Seiner Liebe Seligkeit Immerdar der Fernen schenket, Die ein Leben ihm geweiht.</p> <p>그이가 영원히 나를 생각하며 삶이 그에게 베풀어 준 사랑의 기쁨을 언제나 이 먼 곳으로 보내 준다고</p>	<p>상대방이 느끼는 사랑의 기쁨을 시(노래)라는 매개체로 줄라이카가 받을 수 있다는 내용</p> <p>사랑의 감정이 점차적으로 고조됨</p>	<p>"nach und nach schneller" (점점 빠르게)지시어 사용</p> <p>ritard.(리타르단도) 사용</p>
A'	<p>Ja! mein Herz es ist der Spiegel, Freund, worin du dich erblickst, Diese Brust, wo deine Siegel Kuß auf Kuss hereingedrückt.</p> <p>그래요! 제 마음은 거울입니다 당신이 들여다보는 친구입니다 당신은 입맞춤과 입맞춤으로 제 가슴을 봉인해 놓았습니다.</p>	<p>줄라이카의 편지에 상대방이 강한 동조로 대답하며 사랑의 달콤한 감정을 강조함</p>	<p>강한 동조의 표현으로 당김음을 사용 (A부분에서 약간의 리듬변형)</p> <p>나머지는 A와 동일함</p> <p>ritard.(리타르단도) 사용</p>
B'	<p>Süßes Dichten, lautre Wahrheit Fesselt mich in Sympathie! Rein verkörpert Liebesklarheit, Im Gewand der Poesie!</p> <p>달콤한 시와 순수한 진리가 나를 당신과 하나로 묶어 줍니다! 맑디맑은 사랑은 시의 옷을 입고 순수한 형체를 얻습니다.</p>	<p>사랑의 노래를 나타내는 시의 본질을 노래함</p>	<p>'Lied'(노래)를 나타내는 세 가지 단어를 각각 다른 당김음과 긴 음표로 강조하여 표현함</p> <p>제4연의 내용과 제1연의 내용이 의미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ritard.(리타르단도)를 사용 하지 않고 바로 A"부분으로 연결시킴</p>

A” + 후 주	<p>※슈만에 의해서 반복</p> <p>Wie! mit innigstem Behagen, Lied, empfind’ ich deinen Sinn! Liebevoll du scheinst zu sagen, Daß ich ihm zur Seite bin.</p> <p>노래여, 얼마나 가슴 깊이 즐거웁게 나 너의 의미를 느끼는지! 너는 사랑에 넘쳐 말하는 것 같구나 나 그분 곁에 있노라고.</p>	<p>B’부분과 의미적으로 이어지는 내용 때문에 A부분을 다시 한 번 반복</p> <p>후주가 되받아 사랑의 노래를 노래함</p>	<p>으뜸조인 A장조로 전조하여 V-I 의 정격중지로 마침</p> <p>후주에서 다시 한 번 사랑의 노래를 표현하여 강조하다가 선율이 하강하면서 정격중지로 마침</p>
-------------------	---	--	---

제9곡의 조성은 A장조이며, 빠르기는 “Ziemlich langsam”(상당히 느리게)으로 표기되어 있다. 형식은 A-B-A’-B’-A”구조의 5부 형식으로 A부분은 1-8마디, B부분은 9-16마디, A’부분은 17-24마디, B’부분은 25-32마디, A”부분은 33-40마디 그리고 40-43마디의 후주로 구성한다. 괴테의 『서동시집』에는 제목이 ‘Suleika’(줄라이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슈만은 이를 ‘Lied der Suleika’(줄라이카의 노래)로 바꾸어 표기하였다.

이 시는 괴테가 정신적으로 사랑했던 마리안네 폰 빌레머(Marianne von Willemer, 1784-1860)를 『서동시집』에서 ‘줄라이카’라 이름하고 자신의 이름은 ‘하템’이라 칭하여 서로 주고받은 연애편지의 내용 중 하나이다. <줄라이카 시편>의 시 중 몇 편은 줄라이카가 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줄라이카의 노래>도 그 중 하나인 것으로 여겨진다.⁶⁸⁾ 또한 연구자들은 3연은 마리안네의 편지에 대한 ‘괴테의 답’이라고 추종하는데 슈만이 이를 알았으리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슈만은 이 시를 모두 줄라이카(마리안네)가 쓴 시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괴테가 원시에 ‘Suleika’(줄라이카)라는 제목을 썼는데, 슈만은 이것을 “Lied der Suleika”(줄라이카의 노래)라고 바꾸어 적었기

68) <줄라이카의 노래>는 “앞 시에 대한 대답으로, 분명한 증거는 없으나 연구자들은 이 시의 1, 2, 4연을 마리안네(줄라이카)가 쓴 것이라고 본다. 마리안네는 ‘거울’이라는 모티프를 하퍼스의 시를 통해 알고 있었는데 괴테에게 보내는 암호 편지에서 그 중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기도 하고 하퍼스의 시에서 ‘거울’은 ‘마음’을 의미한다는 점 역시 이 시가 마리안네의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고 한다. [Goethe, 『서동시집』 김용민 옮김, 255에서 재인용.]

때문이다. 그러므로 슈만은 이 시를 줄라이카와 하템이 주고받은 편지가 아니라, 줄라이카가 하템에게 쓴 편지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A부분(마디1-8)

A부분은 시의 제1연을 노래하는 부분이다. <줄라이카의 노래>에서 'Lied'(노래, 마디2)라는 단어는 줄라이카와 하템의 사랑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고리로서 '시'를 의미한다. A부분에서 줄라이카는 'Lied'(노래)에 사랑의 감정을 이입하여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고 있다. 빠르기말은 "Ziemlich langsam"(상당히 느리게)으로 슈만은 줄라이카가 쓴 편지가 시로 낭독되듯 천천히 노래하기를 원하는 듯하다. 곡은 전체적으로 피아노 반주부의 오른손과 성악선율이 거의 동일한 흐름으로 진행하고 있다.

각 행의 가사는 2마디의 악구로 옮겨진다. 슈만은 1행의 가사를 A장조(마디1-2)로, 2행의 가사는 b단조(마디3-4)로 그리고 3-4행의 가사를 딸림조인 E장조(마디5-8)로 전조하며 점차적으로 고조되는 감정을 나타낸다. 마디2의 피아노 반주에서 *sf*(스포르잔도)와 성악부의 8분 쉼표는 이 노래의 핵심 가사인 'Lied(노래)'를 당김음으로 강조하여 표현한다. 마디3의 돈꾸밈음 또한 가사 "Lied, empfind' ich deinen Sinn!"(노래여, 내가 너의 의미를 느끼노라!)에서 'deinen'(너) 즉 '노래'를 음악적으로 강조한다. 성악성부는 피아노의 8분음표의 흐름에 시종일관 올라타며 노래하고 있어, 곡의 흐름이 끊임없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숨 막히는 흐름 속에서도 슈만은 시에서 하나의 연이 마칠 때마다 *ritard.*(리타르단도)를 사용하여 한 템포 쉴 수 있는 여운을 주고 있다(악보11).

<악보11> 제9곡 <줄라이카의 노래> (Lied der Suleika) A부분, 마디1-8

시어 '노래' 를 강조

A Ziemlich langsam

Wie mit in-nigstem Be-ha-gen, Lied, emp-find' ich die nen

p

sf 노래 나의(노래)

A: I * V₄ * I * I * V₉ i₄ ii₆ V₇

b: V₉

Sinn! Lie-be-voll du scheinst zu sa-gen, daß ich

ritard. -

E: vii⁰⁴₃ I₆

ihm zur Sei-te bin, zur Sei-te bin. Daß er

ritard. -

B부분(마디9-16)

B부분은 시의 2연의 가사를 노래한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상대방의 영원한 사랑과 그 사랑의 기쁨을 'Lied'(노래)라는 매개체로 언제나 자신인 줄라이카에게 보내 줄 것이라고 믿으며 읊조리는 내용이다. 마디8부터 반주부의 오른손의 내성은 3도 화음으로 긴장감 있게 진행되며, 반주부의 왼손 베이스는 독

립적인 선율로 “Daß er ewig mein gedenket”(그이가 영원히 나를 생각하며, 마디9-10)의 가사와 음악을 일치시킨다. 시의 연이 진행될수록 반주부의 화음이 풍부해지면서 시의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또한 마디11부터 “nach und nach schneller”(점점 빠르게)의 빠르기로 사랑의 벽참을 긴장감 있게 표현한다. 1연과 마찬가지로 2연이 끝나는 마디15에서도 ritard.(리타르단도)로 마무리되는데, 이는 사랑의 기쁨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여운을 주는 듯하다.

A'부분(마디17-24)

A'부분은 피테 시의 3연을 노래한다. 슈만은 ‘Ja’(그래요, 마디17)로 시작하는 응답의 말을 당김음의 사용으로 강조한다. 그 외의 선율은 A부분과 동일하다. <줄라이카의 노래>는 전체가 4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연이 마칠 때마다 ritard.(리타르단도)를 사용하여 시가 주는 여운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효과를 준다. 악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악상은 P(피아노)를 유지하고 있다. 중간 중간 크레센도와 sf(스포르잔도)도 나오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P(피아노)의 표현으로 연애편지를 은밀하게 주고받듯이 사랑스럽고도 비밀스러운 느낌이 느껴진다.

B'부분(마디25-32)

B'부분은 시의 제4연의 내용에 해당된다. 사랑의 노래를 나타내는 시의 본질을 이야기하며 노래하고 있다. 마디30의 “Im Gewand der Poesie!”(시의 옷을 입고 순수한 형체를 얻습니다)의 가사에서 이 시의 핵심 단어라고 했던 ‘Lied’(노래)의 본질인 ‘Poesie’(시, 마디31-32)를 강조하기 위해 불임줄(마디31)을 이용한 당김음을 사용한다. 음악적 흐름은 리듬의 변형을 제외하고는 B부분과 같다. 앞부분과 다른 점은 시의 연이 마칠 때 썸, ritard.(리타르단도)가 표기되지 않는다. 이는 4연의 마지막 행 “Im Gewand der Poesie!”(시의 옷을

입고 순수한 형체를 얻습니다.)의 의미인 ‘Lied’(노래)가 제1연의 주제내용인 ‘Lied’(노래, 마디2)로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A”부분(마디33-40)

슈만은 B’부분의 가사의 의미인 ‘Lied’(노래)를 바로 이어져 나오는 A”(제1연)부분의 주제인 ‘Lied’(노래)와 내용적으로 매끄럽게 연결하기 위해 A부분을 또 한 번 반복한다. 하지만 A”부분은 A부분과 다르게 마디38에서 이 곡의 으뜸조인 A장조로 전조하며 마디39에서 V-I의 정격종지를 보여준다(악보12).

<악보12> 제9곡 <줄라이카의 노래> (Lied der Suleika) A”부분, 마디33-40

32 sic. Wie mit in nig stem Be ha gen, Lied, emp

35 find' ich dei - nen Sinn! Lie be voll du scheinst zu

38 sa - gen, daß ich ihm zur Sei te bin, zur Sei te bin.

E: vii⁰⁴₃ I₆ (V³/_{IV}) IV vii⁴₃

I₆ (V³/_{IV}) A; I IV vii⁰/_{ii} ii ii₆ I₄⁶ V₇ I

성악성부의 선율을 이어받아 후주로 연결

후주(마디40-43)

A”부분을 마치는 가사 “Daß ich ihm zur Seite bin”(나 그분 곁에 있노라고,

마디39)을 노래하는 마지막 음(A4)을 피아노선율이 같은 음에서 자연스럽게 되받아 상승했다가 마디41의 왼손 아르페지오와 오른손 *sf*(스포르잔도)로 강조한 후, 점점 하강한다. 하강하는 선율을 따라 사랑의 깊은 감정을 아름답게 표현한다. 마디39-40의 성악부와 마찬가지로 후주의 끝도 V-I의 정격종지로 마친다(악보13).

<악보13> 제9곡 <줄라이카의 노래> (Lied der Suleika) 후주 부분, 마디40-43

The image displays a musical score for the postlude of 'Lied der Suleika'. It is divided into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covers measures 38 to 40, featuring a vocal line with German lyrics and a piano accompaniment. The piano part includes a 'ritard.' marking. A box labeled '후주' (Postlude) is placed above the vocal line at the end of measure 40. The second system covers measures 41 to 43, showing the piano accompaniment. It features a 'sf' (sforzando) marking at the beginning of measure 41 and a 'V-I' chord progression box at the end of measure 43. Korean annotations are provided for both systems.

38 sa - gen, daß ich ihm zur Sei - te bin, zur Sei - te bin. *ritard.* 후주

38 성악성부의 선율을 이어받아 후주로 연결

41 선율이 하강하면서 사랑의 깊은 감정이 표현됨 *sf*

V-I 정격종지

V. 결론

슈만은 <가곡의 해>인 1840년에 연가곡 《미르텐》(Myrten, Op.25)을 작곡하여 결혼식 전 날 밤에 신부가 될 클라라에게 이 모음집을 헌정하였다. 《미르텐》은 26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괴테의 『서동시집』에서 발췌한 시를 가사로 하는 다섯 곡이 수록되어 있다. 본 논문은 슈만이 괴테의 『서동시집』에서 선택한 다섯 개의 시가 《미르텐》의 작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고, 슈만이 이를 어떻게 음악적으로 표현하였는지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우선 독일 예술가곡의 배경이 되는 낭만주의 사조를 살펴보았으며, 가사로 쓰인 괴테의 『서동시집』의 내용 및 구성 등을 고찰하여 발췌된 다섯 곡의 가사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서동시집』은 괴테의 노년에 완성된 작품으로, 중세 페르시아 시인 하피스의 작품을 접한 후 감명을 받아 집필된 시집이다. 독일의 한 노인이 미지의 세계인 동방으로 여행을 떠나 느끼는 새로운 문명에 대한 동경과 애정, 더 나아가 서방과 동방의 조화가 이 시집의 내용이다. 괴테는 시인인 화자가 떠나면 동방세계에서 여행하며 느끼는 것들을 시론, 잠언, 인물, 종교 4개의 주제로 분류하였으며, 이는 다시 주제별로 세 편씩, 총 12개의 시편으로 구성된다. 그 중 슈만은 첫 번째 《시인 시편》에서 <자유로운 마음>과 <부적의 글귀들>, 여덟 번째 《줄라이카 시편》에서 <줄라이카의 노래>, 아홉 번째 《술집 시편》에서 <가곡 1>과 <가곡 2> 이렇게 총 다섯 편을 발췌하였다.

본 논문은 괴테의 『서동시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슈만의 《미르텐》에 실린 다섯 곡의 가사를 이해하였고 음악을 분석해 본 결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곡 <자유로운 마음>은 『서동시집』의 12개의 시편 중 《시인 시편》에

수록된 시이다. 말을 타는 시적화자의 자유로운 정신세계, 그리고 그가 믿고 의지하는 절대자에 대한 동경을 내용으로 한다. 2연으로 구성된 시이지만, 피테의 시 제1연을 슈만이 다시 반복하여 A-B-A구조를 가진다. 시적화자를 노래하는 A부분은 밝은 느낌의 Eb장조이며 말발굽소리를 묘사하는 부점 리듬을 주로 사용하였고, 신을 노래하는 B부분은 c단조의 코랄풍 반주로서 신의 엄숙함을 나타내었다. 말하는 대상의 대조를 표현하기 위해 각 부분을 장조와 단조로 구별하였고, 다른 스타일의 반주를 사용하였다. 또한 긍정적인 의미의 가사에서는 가락단음계를 사용하여 가사와 음악을 일치시켰다.

제5곡 <가곡 1>은 『서동시집』의 《술집 시편》에 수록된 시이다. 시적화자가 술집에 홀로 앉아 술을 마시는 이 시간이 가장 좋음을 노래하는 내용으로 술을 통해 현실을 벗어나 이상세계를 상상하게 하는 낭만적인 시이다. A-B-A'형식으로 슈만은 A부분에서 술에 흠뻑 취한 주인공의 모습을 묘사한 옥타브 도약(딸꾹질), 스타카토, >(액센트)등 다양한 아티클레이션을 이용한 음악적 동기들을 사용하였고, B부분에서는 갑작스러운 변박과 전조가 이루어져 술 취한 주인공의 정신이 흐려지는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A'부분은 슈만에 의해 같은 가사가 총 네 번 반복되는데 슈만은 이를 같은 화성진행을 하되 각각 다른 리듬과 멜로디로 재미있게 표현한다. 가사가 진행되는 네 번 중 마지막 두 번은 피아노 반주 성부와 성악부가 마치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모습의 표현으로 제5곡의 주제 가사를 더 강조하여 나타냈다.

제6곡 <가곡 2>는 앞 곡과 마찬가지로 『서동시집』의 《술집 시편》에서 발췌하였다. 이 곡은 시적화자가 자신에게 술 따르기를 원치 않는 술집 종업원과 자신에게 술 따르기를 원하는 술집 청년, 두 명의 대상에게 말하는 내용의 곡이다. 슈만은 옛 시대 정신을 동경하는 중세 독일의 바르 형식(Bar form)인 A-A'-B구조를 사용하였다. A부분은 술집종업원에게 말하는 내용이고, A'부분은 술집 청년에게 말하는 내용을 가지며 A와 A'부분은 멜로디가 같

다. 그러나 화자가 각각의 대상에게 가진 다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슈만은 단조와 장조라는 조성의 대조를 사용했다. 반주패턴 역시 A는 당김음적인 폴리포니 리듬과 f(포르테)의 호모포니 리듬을 섞어 사용하여 단호함을 나타내고, A'는 페달 포인트와 피아노의 오른손 내성의 움직임을 주어 따뜻함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B부분은 술집 청년과 함께하여 기쁜 화자의 마음을 긴 후주가 대신하여 표현해 주었다. 이와 같이 형식적인 면과 장·단조와 반주 스타일의 대조, 그리고 긴 후주의 사용 등으로 시와 음악의 일치를 꾀하였다.

제8곡 <부적의 글귀들>은 『서동시집』의 <<시인 시편>>에 수록된 시이다. 신을 찬양하는 내용을 가지며, 레치타티보 풍의 성악 선율과 코랄풍의 반주가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이다. 형식은 A-B-A'-C-A-Coda의 론도형식이다. 피테의 원시는 총 5연을 구성하는데 슈만은 3연까지만 곡을 붙였고, 신을 찬미하는 1연의 내용을 곡의 중간부분과 끝부분에 반복하여 사용함으로 그 가사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곡의 끝부분에 피테의 시에는 없는 아멘을 첨가하고 두 번이나 반복함으로써 신에 대한 구원의 갈망을 덧붙여 강조하였다.

제9곡 <줄라이카의 노래>는 『서동시집』에서 중요한 시편인 <<줄라이카 시편>>에 수록된 시이다. A-B-A'-B'-A"의 5부 형식이며 『서동시집』의 주인공인 하렘(피테)과 그가 사랑한 줄라이카(마리안네)의 사랑을 노래하는 시이다. 느린 템포의 끊임없는 8분음표 흐름 속에서 사랑의 감정을 잔잔하게 느낄 수 있다. 슈만은 시에서 각 연이 마칠 때마다 ritard.(리타르단도)를 표현하여 충분히 여운을 남긴 후, 시의 다음 연으로 넘어가도록 하였다. 총 4연으로 구성된 시는 슈만에 의해서 제1연이 한 번 더 반복된다. 네 마디 후주는 성악부의 멜로디를 되받아 상행했다가 저음부로 하행하면서 깊이 있는 사랑을 표현한다.

슈만이 괴테의 『서동시집』에서 발췌한 다섯 편의 시들은 내용적으로 자유로운 마음, 별, 부적(신), 술, 사랑, 그리고 노래와 같이 서로 다른 주제를 이야기 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현실을 부정하고 이상세계를 추구하는 낭만성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슈만은 동양에 대한 동경, 이상세계를 표현한 낭만성과 그를 넘어 서양과 동양의 조화를 추구하는 『서동시집』의 주제에 공감하였고, 그리하여 수많은 작품 중 『서동시집』에서 특히, 낭만적인 시 다섯 편을 발췌하여 연가곡 《미르텐》에 수록하였다. 연가곡 《미르텐》은 총 26곡으로 이루어져있는데, 26곡의 꽃송이로 엮여진 미르텐 꽃다발은 슈만이 결혼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조화와 결합으로도 그 의미가 이어진다. 이는 『서동시집』의 주제인 서양과 동양의 조화에도 상응한다고 생각된다.

슈만은 괴테의 다섯 편의 시에다가 음악을 붙이면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보여주었다. 첫째, 슈만은 괴테의 시의 운율을 그대로 살려 강세나 음표를 통해 음악적으로 묘사하였다. 둘째, 단조와 장조의 대조적인 사용으로 말하는 대상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셋째, 말발굽, 딸꾹질, 술 취함, 신을 찬양, 노래, 사랑을 부점, 옥타브 도약, 아르페지오, 당김음 그리고 폴리포니·호모포니 등의 다양한 리듬으로 음악적 동기를 만들어 사용하여 시와 음악을 일치시켰다. 넷째, 예상적 화음, 증 화음, 감 화음 등의 사용으로 화성의 색깔로도 시의 분위기를 이끌어 내었다. 다섯째, 긴 피아노 후주를 통해 말이 아닌 음악만으로 시적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여섯째, 괴테의 원시를 바탕으로 슈만이 재해석하여 하나의 연을 반복 또는 생략하거나 새로운 가사를 덧붙이거나 하는 식의 작업을 하여 바르 형식, 5부 형식, 론도 형식 등의 구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그 시의 주제가 더 강조되어 표현될 수 있었다. 이처럼 슈만은 짧고 단순할 수 있는 시를 슈만의 세심한 작곡스타일로 옷을 입혀 시와 음악의 완전한 일치를 보여주는 예술가곡을 탄생시켰다. 본 논문을 통해 괴테의 시에서 발췌된 다섯 곡이 성악가나 반주자들에게 재조명되어 활발한 연구와 연주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참 고 문 헌

<국내저서>

- 김미애, 『독일 가곡의 이해』, 서울, 삼호출판사, 1998.
- 남용. 『핸드북 음악용어사전』, 서울, 일신서적출판사, 1994.
- 이경숙. 하이네와 슈만. 대한민국예술원 제 43집, 2004.
- 홍정수, 김미옥, 오희숙. 『두길 서양음악사2』, 나남, 2006.

<외국저서 및 번역서>

- Goethe, Johann Wolfgang. 『서동시집』, 최두환 옮김, 서울: 도서출판 시와진실, 2002.
- Goethe, Johann Wolfgang. 『서동시집』, 김용민 옮김, 서울: 민음사, 2007
- Goethe, Johann Wolfgang. *West-östlicher Divan*. herausgegeben von Michael Knaupp, Stuttgart : Reclam, 1999.
- Kimball, Carol. *Song* (하권), 채은희 번역, 서울: 형설, 2007.
- Michels, Ulrich. 『음악은이 2』, 홍정수, 조선우 편저, 서울: 세광음악, 1996.
- Schunann, R. 『슈만 가곡집: 미르테의 꽃. 리더크라이스. 여자의 사랑과 생애. 시인의 사랑 등: 高聲用』 서울: 태림, 2000.

<학위논문>

- 김이슬. “슈만의 가곡집 《미르텐》 (Myrten, Op.25) 작품 연구 - 뢰케르트와 하이네의 시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6.
- 김창숙. “Schumann의 Myrten(Op.25)中 Burns의 詩에 붙인 歌曲에서 詩와 音樂과의 關係分析 研究,”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1.

이은미. “괴테의 『서동시집』과 예술가곡을 통해 본 시와 음악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이한나. “슈만 《미르테의 꽃(Myrten) Op.25》중 하이데의 시에 의한 예술가곡에 나타난 낭만주의적 기법 고찰,”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형진미. “슈만 가곡집 《미르테의 꽃》 연구” : 시의 운율과 음악적 악센트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5.

<학술지논문>

장견실, “조성구조로 본 슈만의 연가곡 구상,” 음악과 민족 제16호 (1998), 213-231.

지형주 “구월의 신부를 위한 노래 <미르텐 Myrt(h)en> 에 담겨있는 슈만의 낭만성,” 음악이론연구 제11호 (2006),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 21-39.

<인터넷 자료>

<https://en.wikipedia.org/wiki/Myrtus> 2016년 03월 26일 접속.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880843&cid=43671&categoryId=43671>

2016년 11월 4일 접속.

<https://ko.wikipedia.org/wiki/%EC%84%9C%EB%8F%99%EC%8B%9C%EC%A7%91>

2016년 11월 10일 접속.

<https://ko.wikipedia.org/wiki/%EC%84%9C%EB%8F%99%EC%8B%9C%EC%A7%91>

2016년 12월 20일 접속.

https://en.wikipedia.org/wiki/Song_cycle

2016년 12월 25일 접속.

ABSTRACT

Analytical study on five songs,
from the collections of Goethe
of 《Myrten Op. 25》 by R. Schumann

Lee A-Ryoung

Department of Collaborative Piano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s an analysis of five songs from the poems of Johann Wolfgang von Goethe(1749-1832) which are from a song cycle titled 《Myrten》, it is comprised of 26 songs, composed by Robert Schumann(1810-1856). These five songs are extracted from *West-östlicher Divan* written by J. W. Goethe are included in 《Myrten》 which is dedicated to Clara Josephine Schumann(1819-1896), R. Schumann's fiancée.

J. W. Goethe is completed a book of poetry, *West-östlicher Divan*, in his old. This poetry is about the yearning for the Orient and pursuing the harmony of the west and east. In what follows, I explore the semantic relevance between 《Myrten》 and *West-östlicher Divan*, and ferret out how R. Schumann expresses these five songs musically.

I first examine Romanticism, Lied and *West-östlicher Divan* in order to

understand the background of the five songs in 《Myrten》. I then endeavor to analysis the five songs and draw a conclusion as blow.

Given these five songs R. Schumann collected, it appears likely to us that he consented to what J. W. Goethe wanted to tell though the poetry: romantic idea, yearning for the Orient, and pursuing the harmony of the west and east. Even it seems like that R. Schumann selected the pieces randomly from the J. W. Goethe's work: release, tailsman, song 1, song 2, and song of Suleika, in the overall perspective, those poems tell Romanticism through pursuing ideal world but denial reality. And the analogy in this case can be made to the title of his song cycle, Myrten, which means a bouquet woven by 26 blossoms(songs). More to the immediate point, he would like to pursuing ideal harmony and union through his marriage.

Notably there are significant characteristics from the five songs in 《Myrten》 extracted J. W. Goethe's works as follow. First, R. Schumann described the rhythm of the poems lively in his music through musical accent and notes. Secondly, Using contrast between major and minor shows different speakers in the poems. Third, He expressed the unique sounds from the poetry such as horseshoe, hiccups, drunkenness, song, praise of God, and love by musical motives with various rhythm: dotted, octave leap, arpeggio, polyphony and homophony. Forth, Applying anticipation, augmented chord, diminished chord and more describe the mood of each piece. Fifth, Only with the long piano repertoire, poetic atmosphere is shown without words. Lastly, R. Schumann reinterpreted the original poetry through repeating or omitting a certain line and write new

lyrics and it leads to emphasize the main theme of the poetry. Robert Schumann created a wonderful Lied described the simple but complicated poems perfectly through beautiful music with his sensitive composing ability.